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은 주 희
공동연구원: 임 고 운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발 간 사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일이 아닙니다. 자립의 기반이 충분히 만들어진 성인에게도 자녀양육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롭고 두려운 세계입니다. 더구나 청소년기라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는 아직 완전하게 자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장과 자녀의 양육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외부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만 부모 역할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청소년부모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부모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듣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총 315명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활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면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부모 현황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와 밀착된 실무전문가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부모의 지원방안을 세우는데 매우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연구를 위하여 애쓰신 은주희 책임연구원과 임고운 공동연구원님,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기관인 킹메이커의 배보은 대표를 비롯한 실무전문가들, 연구비를 지원해준 아름다운 재단, 이 연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끌어주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유미숙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설문과 면담에 기꺼이 응해준 청소년부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한 기쁨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영나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4. 용어의 정의 ····· 5

Ⅱ. 연구방법 ····· 7
1. 설문조사 ····· 7
1) 조사대상 ····· 7
2) 조사방법 ····· 7
3) 분석방법 ····· 8
2. 면담조사 ····· 8
1) 청소년부모 면담 ····· 8
2) 전문가 면담 ····· 11
3) 분석방법 ····· 13

Ⅲ. 청소년부모 설문조사 결과 ····· 14
1. 응답자의 배경 특성 ····· 14
2. 가족 관계 ····· 19
3. 학력 및 취업 실태 ····· 23
4. 소득 및 부채 수준 ····· 28
5. 거주 실태 ····· 36
6. 임신 및 육아실태 ····· 48
7. 청소년부모 지원요구 ····· 55
8. 소결 ····· 61

Ⅳ. 청소년부모 면담조사 결과 ····· 68
1. 원가족과의 관계 ····· 68

2. 임신 및 육아경험 ····· 69
3. 학업 및 취업경험 ····· 77
4. 소득 및 주거상황 ····· 79
5. 청소년부모 지원요구 ····· 81
6. 소결 ····· 85

Ⅴ. 국내외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 ····· 87
1. 국내 사례 ····· 87
1) 정부 ····· 87
2) 민간단체 ····· 90
2. 해외 사례 ····· 93
1) 국가별 지원정책 ····· 93
2) 민간단체 ····· 99
3. 소결 ····· 101

Ⅵ. 결론 및 제언 ····· 105
1. 요약 및 논의 ····· 105
2. 정책적 제언 ····· 109

참고문헌 ····· 115

부록 ····· 117
1. 연구참여 동의서 ····· 117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설문지 ····· 118

표 차 례

<표 Ⅰ-1>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 규정 근거 ····· 6
<표 Ⅱ-1>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 9
<표 Ⅱ-2> 면담 참여자 ····· 10
<표 Ⅱ-3> 실무자 심층면담 주요내용 ····· 11
<표 Ⅱ-4> 면담 참여자(실무자) ····· 12
<표 Ⅲ-1> 거주 지역 ····· 14
<표 Ⅲ-2> 성별 분포 ····· 16
<표 Ⅲ-3> 연령 분포 ····· 16
<표 Ⅲ-4> 자녀 수 ····· 18
<표 Ⅲ-5> 자녀 나이 ····· 18
<표 Ⅲ-6> 현재 동거인 여부 및 인원 ····· 20
<표 Ⅲ-7> 혼인신고 및 동거 여부 ····· 21
<표 Ⅲ-8>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 ····· 22
<표 Ⅲ-9>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황 ····· 23
<표 Ⅲ-10> 최종 학력 ····· 24
<표 Ⅲ-11> 학업 중단 이유 ····· 25
<표 Ⅲ-12> 근로활동 경험 ····· 26
<표 Ⅲ-13> 현재 직업 ····· 27
<표 Ⅲ-14> 무직 사유 ····· 28
<표 Ⅲ-15> 월 평균 수입 ····· 29
<표 Ⅲ-16> 주 소득원 ····· 30
<표 Ⅲ-17> 저축 여부 ····· 31
<표 Ⅲ-18> 저축 목적 ····· 31
<표 Ⅲ-19> 부채 여부 ····· 32
<표 Ⅲ-20> 대출 금액 ····· 33
<표 Ⅲ-21> 대출 목적 ····· 34
<표 Ⅲ-22> 대출 경로 ····· 35
<표 Ⅲ-23> 임시 초기 거주지 ····· 36
<표 Ⅲ-24> 출산 직전 거주지 ····· 37
<표 Ⅲ-25> 출산 직후 거주지 ····· 38
<표 Ⅲ-26> 집/시설 이외 거주경험 ····· 39

〈표 Ⅲ-27〉 집/시설 이외 다른 장소에서 머문 기간 ····· 40
〈표 Ⅲ-28〉 시설 입소 경험 ····· 41
〈표 Ⅲ-29〉 시설 미이용 사유 ····· 42
〈표 Ⅲ-30〉 거주 유형 ····· 44
〈표 Ⅲ-31〉 거주지 형태 ····· 45
〈표 Ⅲ-32〉 거주지 위치 ····· 46
〈표 Ⅲ-33〉 거주지 마련 방법 ····· 47
〈표 Ⅲ-34〉 임신 당시 연령 ····· 49
〈표 Ⅲ-35〉 임신 시 가족의 조언 내용 ····· 50
〈표 Ⅲ-36〉 임신 시 피임법에 대한 인지 정도 ····· 51
〈표 Ⅲ-37〉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 52
〈표 Ⅲ-38〉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 ····· 53
〈표 Ⅲ-39〉 원 가족 경제상황 ····· 55
〈표 Ⅲ-40〉 정부보조금 수급등록여부 ····· 56
〈표 Ⅲ-41〉 정부보조금 수급자 미등록 사유 ····· 57
〈표 Ⅲ-42〉 양육논의 대상 ····· 58
〈표 Ⅲ-43〉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 59
〈표 Ⅲ-44〉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 60
〈표 Ⅲ-45〉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63
〈표 Ⅴ-1〉 청소년 미혼부모 국내 지원 정책 ····· 89

그 림 차 례

[그림 Ⅰ-1] 연구흐름도 ····· 5
[그림 Ⅲ-1] 거주 지역(권역 단위) ····· 15
[그림 Ⅲ-2] 거주지역(시/도 단위) ····· 15
[그림 Ⅲ-3] 성별 ····· 17
[그림 Ⅲ-4] 연령대 ····· 17
[그림 Ⅲ-5] 연령별 분포율 ····· 17
[그림 Ⅲ-6] 자녀 수 ····· 19
[그림 Ⅲ-7] 자녀 나이 ····· 19
[그림 Ⅲ-8] 현재 동거인 여부 및 인원 ····· 20
[그림 Ⅲ-9] 혼인신고 및 동거 여부 ····· 21
[그림 Ⅳ-10]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 ····· 22
[그림 Ⅲ-11]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황 ····· 23
[그림 Ⅲ-12] 최종 학력 ····· 24
[그림 Ⅲ-13] 학업 중단 이유 ····· 25
[그림 Ⅲ-14] 근로활동 경험 ····· 26
[그림 Ⅲ-15] 현재 직업 ····· 27
[그림 Ⅲ-16] 무직 사유 ····· 28
[그림 Ⅲ-17] 월 평균 수입 ····· 29
[그림 Ⅲ-18] 주 소득원 ····· 30
[그림 Ⅲ-19] 저축 여부 ····· 31
[그림 Ⅲ-20] 저축 목적 ····· 32
[그림 Ⅲ-21] 부채 여부 ····· 33
[그림 Ⅲ-22] 대출 금액 ····· 33
[그림 Ⅲ-23] 대출 목적 ····· 35
[그림 Ⅲ-24] 대출 경로 ····· 36
[그림 Ⅲ-25] 임시 초기 거주지 ····· 37
[그림 Ⅲ-26] 출산 직전 거주지 ····· 38
[그림 Ⅲ-27] 출산 직후 거주지 ····· 39
[그림 Ⅲ-28] 집/시설 이외 거주경험 ····· 40
[그림 Ⅲ-29] 시설 입소 경험 ····· 41
[그림 Ⅲ-30] 시설 미이용 사유 ····· 42

[그림 Ⅲ-31] 집/시설 이외 다른 장소에서 머문 기간 ····· 43
[그림 Ⅲ-32] 거주 유형 ····· 44
[그림 Ⅲ-33] 거주지 형태 ····· 45
[그림 Ⅲ-34] 거주지 위치 ····· 46
[그림 Ⅲ-35] 거주지 마련 방법 ····· 47
[그림 Ⅲ-36] 임신 당시 연령대 ····· 48
[그림 Ⅲ-37] 임신 시 연령 ····· 49
[그림 Ⅲ-38] 임신 시 가족들의 조언 내용 ····· 51
[그림 Ⅲ-39] 임신 시 피임법에 대한 인지 정도 ····· 52
[그림 Ⅲ-40] 임신/출산 및 양육 정보습득 경로 ····· 53
[그림 Ⅲ-41]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 ····· 54
[그림 Ⅲ-42] 원 가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55
[그림 Ⅲ-43] 정부보조금 수급등록여부 ····· 56
[그림 Ⅲ-44] 정부보조금 수급자 미등록 사유 ····· 57
[그림 Ⅲ-45] 양육논의 대상 ····· 58
[그림 Ⅲ-46]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 59
[그림 Ⅲ-47]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 60
[그림 Ⅴ-1]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 추진체계 ····· 89
[그림 Ⅴ-2] Almost Home의 지원 모델 ····· 97
[그림 Ⅵ-1] 청소년부모와 자녀를 위한 주거기반의 통합사례관리 ····· 111
[그림 Ⅵ-2] 청소년부모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정보 제공 ····· 112
[그림 Ⅵ-3] 지역사회 중심의 성교육 확대 ····· 114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 비율이 전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자녀를 출생한 19세 이하 미혼모·부가 387명이고 20세 이상에서 24세 이하가 2,008명이었다. 또한 2018년에는 19세 이하의 미혼모·부가 323명, 20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는 1,766명이었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약 2,099명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숫자는 서류상 미혼모·부로 등록되어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받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출생아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통계청에서 집계된 출생아 수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출생아 수가 326,822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19세 이하 총 출생아 수가 1,300명, 20세 이상에서 24세 이하가 13,313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 중 14,600명이 24세 이하의 여성에게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된 이들은 홀로 자녀 양육을 맡아 미혼모·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법적 연령의 제한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15년 한 고시원에서 생후 7일된 아기와 생활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10대 청소년부부의 사례가 있었다(중부일보, 2015). 이들은 임신을 했을 때부터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느꼈고 출산 후 입양을 권유받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시사저널, 2010).

현재 자녀를 출산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는 유일하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부만을 포함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법적 부부인 청소년들이 제도적 측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을 꾸렸음에도 여전히 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거주지 마련 등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앞선 통계청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미혼모·부의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5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연구'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10대 임신 예방 및 미혼모들의 자립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10대 미혼모들이 학업 및 취업 등 생계의 문제에서 겪는 어려움을 드러내어 빈곤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출하였다. 지난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한부모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청소년한부모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가 있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가 수행되었다. 지난 2018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가장 최근 정책 발표로 지난 2018년 2월에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립과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와 정부의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부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도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됨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미혼부에 대해서는 양육비 책임에 대한 법제화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피임과 임신 예방에 대한 논의와 특정 서비스 영역에 대한 단편적인 제도 지원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 기구에서 현황이 파악된 미혼모·부들, 곧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황 밖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미혼모·부들까지 논의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된 '청소년부모'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령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부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 상태인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미혼부, 청소년부부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부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상황이 제대로 표출되고 법적 보호와 지원까지 고려하려면, 이들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미혼모, 청소년미혼부를 가리키는 ‘청소년한부모’ 대신 ‘청소년부모’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닌 현상적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청소년부모 지원서비스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부모와 자녀의 물리적·심리적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탐색하여 제도개선 및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민간기관에서 청소년부모의 생활과 관련된 실태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조사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관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련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그리고 국내외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는 관련 사례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문헌 및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부모 관련 법령 검토는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 앞서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관련 법령 및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고 범위를 정리하였다.

둘째, 청소년부모 대상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관련 기관실무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 내

용은 실태조사 진행 방향 설정, 청소년 관련 현안 파악,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도구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에 활용되었다.

셋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들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량적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정성적 측면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시점 기준 전국의 만 1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출산 및 양육, 학업, 취업, 소득, 주거 항목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면담조사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사전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응답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보다 더 보충적이고 심화된 경험의 내용과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청소년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청소년부모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로서 민간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부모의 생활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지원정책 혹은 관련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사례는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 개선과 정책 제언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발굴 및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내외 정부와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제도 및 지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와 관련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부모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된 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연구흐름도는 다음 [그림 I-1]과 같다.

수행 절차	내 용	방 법
연구방향 설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진/실무자 협의
▼		
자료 분석	청소년부모 관련 문헌분석 선행연구 검토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
▼		
설문조사	질문지 설계	연구진-실무진 협의/ 전문가 자문
	설문실시	온라인 자기기입식설문
	자료처리 자료분석	빈도분석
▼		
면담조사	질문 구성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진 회의
	개별 면담 실시 (청소년부모, 실무전문가)	일대일 면담
	자료분석	내용분석법
▼		
전문가 자문	개선방안 논의	연구진-실무진 협의/ 전문가 자문
▼		
결론 도출	종합 결론 및 제언 도출	문헌/협의/면담 등 종합분석

[그림 Ⅰ-1] 연구흐름도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부모’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연령을 규정하는 국내 법령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관련 법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있다. 이 중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에서도 성년의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는 사회적으로 만 24세까지는 결혼이나 직업·경제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성인으로 생활하

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보호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경남일보, 2016).

다음으로,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이 부모가 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는데, 이 역시 만 24세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하고 있다. 민법에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실혼일지라도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없이는 그 어떤 법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한부모란 용어는 한쪽 부모만을 인정하는 용어로서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 부와 모 중 한명만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데 있어 자녀 양육 유무보다 혼인여부 자체를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역시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 연령에 속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가족 혹은 부모의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미혼모·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는 만 20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법적 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령상의 연령과 대상을 고려하되 실질인 현상을 고려하여 '청소년부모'라 하였으며, 만 24세 이하로서 현재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 및 부부를 의미한다.

〈표 Ⅰ-1〉 본 연구의 청소년부모 규정 근거

관련 법령	대 상	본 연구의 대상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만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2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Ⅱ. 연구방법

1.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모집단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이다. 그러나 그 규모나 분포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진 통계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모집단 구성원을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표집을 위한 표본추출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들 집단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상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미혼부, 청소년 부부를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당사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미혼부, 청소년 부부를 1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출발하는 눈덩이 방식으로 표본을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1차에서 추출된 조사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연결되었고 조사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여 새로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였다. 셋째, 발굴된 2차 조사대상자들을 통하여 3차 조사대상자들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표본이 추출되었다. 표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추천인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2) 조사방법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질문지 설계를 위하여 연구자 2인을 비롯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실무자 2인, 사회복지전문가 1인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조사 내용은 청소년부모의 개인적 배경 특성을 포함하여 취업과 소득실태, 교육실태, 주거 및 육아실태, 경제적 여건(부채 및 저축수준), 원가족과의 관계로 조사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서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총 52문항의 질문으로 구성하

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설문지에 대하여 학계 전문가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학 전문가 1명과 조사영역 중 보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주거실태 영역설문 점검을 위하여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쳤다.

셋째, 설문조사는 2019년 8월에 2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하여 자기기입식 조사가 이루어졌고, 결측치가 있는 경우 전화조사를 통하여 응답을 받았다.

3) 분석방법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거친 뒤,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는 총 317명이 작성하였으나, 무응답이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여 최종 315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자료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설문 응답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인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도출하였다. 응답결과는 '가족관계, 학력 및 취업실태, 소득 및 부채수준, 거주실태, 임신 및 육아실태,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로 구성하였다.

2. 면담조사

1) 청소년부모 면담

(1) 조사내용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이해한 뒤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정량적 결과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실태를 보완하고자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할당표집의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1차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면담에 응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였다. 참여자 연령과 교육수준,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취업상황, 동거가족, 그리고 거주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대표적 특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연구자에 의해 임의대로 선정되었다. 다만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수도

권으로 한정하였다. 2차적으로, 1차에서 선정된 총 10명의 대상자 중 선정 조건 및 인터뷰 참여에 관한 재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최종 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개별면담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반구조화된 면담형식으로 실시되었다. 면담은 1인당 1회를 기본으로 하고 2명의 연구자가 몫을 나누어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은 영유아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자가 참여자 거주지 근처로 방문하여 카페나 병원 등에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는 연구 참여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면담 참여절차 및 연구 윤리를 다시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고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하였다. 또한 면담과 관련된 사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면담 참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였다.

면담 내용으로는 먼저, 참여자가 사전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거 및 육아경험, 취업경험 및 소득수준, 교육경험에 대한 실제 경험 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생활실태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및 출산 전/중/후의 경험, 부모로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인식이나 어려움 등을 알아보았다. 이는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정체성 및 어려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로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면담의 주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1>과 같다.

〈표 Ⅱ-1〉 심층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내 용
임신 및 출산 과정	임신을 알았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임신 사실을 지각한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엄마 역할'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출산 이후	출산 직후 느낌은 어땠습니까?
	어린 엄마(청소년 미혼모)로 살아가는 건 어떠합니까? 주변의 반응은 어떠하며, 본인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역할	엄마 역할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며,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자녀 훈육은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요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교육경험	자녀를 임신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학교 중퇴자의 경우) 학교의 조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학교 졸업자의 경우) 임신한 채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학업을 다시 시작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경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및 소득수준	현재 일을 쉬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월 수입의 지출은 주로 어떤 용도에서 이루어지나요?
	취업문제에 대해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거상황	임신 초, 중, 후기에 거주했던 곳은 어디며,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동안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거 형태는 어떠하며,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그동안 주거 마련을 위해 해온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책 인식 및 개선사항	주거 관련 필요한 정보나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법정 한부모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청소년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면 하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면담조사 참여자

면담조사에 응한 참여자는 10대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이다. 설문조사는 청소년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졌으나 면담조사의 경우 면담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대상이 주로 모(母)에 해당하는 여성들이었고, 앞서 언급한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이 여건상 역시 모(母)에 해당하여 최종 선정된 5명의 참여자는 모두 '여성' 이었다. 동시에 설문조사 응답 비율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부부들이 상당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제 면담 참여에는 응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정된 참여자 5명은 '청소년 미혼모' 에만 해당되었다. 이 때문에 면담조사를 통해 청소년미혼부와 청소년부부의 목소리까지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최종 선정된 5명의 면담 참여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거주지, 자녀연령, 최종학력, 직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참여자들은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자녀의 친부)와 헤어져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미혼모로서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Ⅱ-2〉 면담 참여자

연 번	이 름	연 령	성 별	거주지역	자녀연령	최종학력	직업
1	임○○	22세	여	서울(시설)	5세	고등학교 졸업	간호조무사
2	이○○	21세	여	서울(시설)	2세	고등학교 졸업	필라테스 강사
3	강○○	20세	여	서울(부모님 집)	2세	대학교 중퇴	무직
4	안○○	23세	여	서울(시설)	4세	대학교 중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5	감○○	21세	여	인천(자가)	3세	고등학교 중퇴	콜센터

2) 전문가 면담

(1) 조사내용 및 절차

연구의 주요 참여자인 청소년부모 외에 이들의 면담 내용 및 관련 정책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에서 약 10년 전후의 경력을 가진 실무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본 연구의 주관기관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담당자로부터 1차적으로 추천을 받고 2차적으로는 추천 대상자 중 면담 일정이 가능한 분으로 선정이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미혼모·부 외에 청소년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지원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명은 서면조사로 한 명은 개별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질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어 담당자가 작성한 답을 받고 이에 대해 전화면담으로 다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조사는 서면조사와 같은 질문지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구두로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다. 주요 면담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Ⅱ-3>과 같다.

〈표 Ⅱ-3〉 실무자 심층면담 주요내용

구분	내용
소 개	청소년미혼모 대상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청소년미혼모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원 사업의 초점 및 방향을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점 인식 및 대응노력	청소년미혼모(부부포함) 대상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인식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주거/취업/생계 등 환경적 측면 - 청소년미혼모 개인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기관에서는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 문제/어려움의 심각성을 느끼거나 경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어려움 및 필요사항	청소년미혼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면담조사 참여자

전문가 면담에 참여한 2명은 모두 설립된 지 약 10년 된 단체 대표들로서 자체적으로 청소년부모 대상의 지원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참여 전문가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청소년미자립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킹 메이커의 배보은 대표였다. 그녀는 미성년인 청소년부모들이 법률적으로 행위주체가 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회보장지원을 받기조차 어려운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부모들에 집중하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주거 문제 해결과 안전한 출산 및 건강한 자립, 부모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참여 전문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단법인 링커의 이효천 대표로 위드맘이라는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이었다. 그는 20대 초반 한 청소년미혼모의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해주던 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미혼모들의 주거, 학업, 취업, 양육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미혼모들의 주거문제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아리대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업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무엇보다 자립한 청소년미혼모들의 해외봉사기회를 연계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선순환을 꿈꾸고 있었다. 현재 약 500여 가정 이상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참여 전문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러브더월드 단체의 서지형 이사로, 법무부의 소년원 학교 학생들과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의뢰받은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미혼모지원사업을 하게 된 여성이었다. 그녀는 원가족과 단절된 채 힘겹게 생활하는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쉼터, 의료, 학업, 양육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현재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례 총 750여 가정 중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부모가정 약 100곳을 관리·지원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4>와 같다.

〈표 Ⅱ-4〉 면담 참여자(전문가)

연번	성명	연령	성별	단체	지역	설립연도	주요 활동
1	배보은	40대	여	킹 메이커	인천	2011	119응급하우스, 인큐베이팅하우스, 부모교육 및 생활교육 지원, 일자리 지원 등
2	이효천	30대	남	사단법인 링커	안산	2015	긴급위기지원, 해아리 대안학교,올리브(주거지원), 프롬맘 해외봉사
3	서지형	40대	여	러브더월드	수원	2015	쉼터보호, 의료지원, 검정고시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양육상담 등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 수행 시 모든 자료를 면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을 하였다. 그리고 면담 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하여 모든 녹음 내용을 Microsoft word로 전사하였으며, 이는 A4기준 총 181페이지 분량이 되었다.

전사한 내용은 연역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초기 코딩은 연구자 2인이 각각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초기 코딩은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별로 정리하였으며, 총 222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질문 구분 항목을 기준으로 각 코드를 영역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영역이란 가족 관계, 학력 및 취업, 소득 및 부채, 거주, 임신 및 육아, 지원 요구를 의미한다. 초기 코드 중 각 영역을 보완할 코드들을 중심으로 범주화하고, 영역에는 없지만 면담조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코드들은 별도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범주들은 연구자 2인이 각각 분석한 이후 분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상호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면담에서 서면조사의 경우 한글문서로 A4기준 5페이지, 면담조사의 경우 Microsoft word로 17페이지 분량이 되었는데, 이 역시 연역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부모 대상 설문조사의 항목을 기준으로 각 영역에서 실무자(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들을 발췌하였으며,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각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보완자료로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Ⅲ. 청소년부모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배경 특성

1) 거주 지역

본 연구의 조사결과 수집된 표본은 총 315명이었다.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수도권 52%, 영남권 20.3%, 충청권 12.2%, 호남권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인천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조사가 연구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상담을 받은 경험자를 1차 조사 대상자로 하였던 점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2차, 3차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대상자로 설문을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 연령은 여성이 92.4%, 남성이 7.6%로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또한 여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표 Ⅲ-1> 거주 지역

구 분	지 역	사례 수(명)	비율(%)	
수 도 권	서 울 시	47	14.9	52.0
	경 기 도	78	24.8	
	인 천 시	39	12.4	
강 원	강 원 도	8	2.5	2.5
영 남	부 산 시	22	7.0	20.3
	경상남도	19	6.0	
	대 구 시	9	2.9	
	경상북도	10	3.2	
	울 산 시	4	1.3	
호 남	광 주 시	17	5.4	11.1
	전라북도	10	3.2	
	전라남도	8	2.5	
충 청	충청북도	10	3.2	12.2
	충청남도	16	5.1	
	세 종 시	3	1.0	
	대 전 시	9	2.9	
제 주	제 주 도	6	1.9	1.9
전 체		315	100	

[그림 Ⅲ-1] 거주 지역(권역 단위)

[그림 Ⅲ-2] 거주지역(시/도 단위)

2) 성별

조사대상자 성별은 여성이 291명으로 92.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24명으로 7.6%가 해당되었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실제 배우자와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라 하더라도 대부분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 성별 분포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여 성	291	92.4
남 성	24	7.6
전 체	315	100

3) 연령

본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의 연령별 분포는 19세 이하 미성년이 66명(21%),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249명(79%)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21.4세로 나타났다.

<표 III-3> 연령 분포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구 분	사례수(명)	비율(%)
10대	만 17세	6	1.9	미성년 (만 19세 이하)	66	21.0
	만 18세	29	9.2			
	만 19세	31	9.8			
20대	만 20세	39	12.4	성년 (만 20세 ~만 24세)	249	79.0
	만 21세	42	13.3			
	만 22세	54	17.1			
	만 23세	57	18.1			
	만 24세	57	18.1			
평 균					21.4	
전 체					315	100

[그림 III-3] 성별

[그림 III-4] 연령대

[그림 III-5] 연령별 분포율

4) 자녀 수 및 연령

자녀의 수는 1명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2명 이상인 경우가 26.2%, 임신 중인 경우도 3.2%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상자의 자녀의 연령을 조사해 본 결과, 첫째 자녀 기준으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48.2%였으며, 만 7세 이하의 유아가 45.6%로 나타나고 있었다. 8세 이상 취학아동인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높지 않은 만큼 자녀의 나이도 대부분 7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III-4> 자녀 수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임신 중	10	3.2
1명	254	80.6
2명	45	14.3
3명	6	1.9
전 체	315	100

<표 III-5> 자녀 나이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영아(만 2세 이하)	147	48.2
유아(만 7세 이하)	139	45.6
아동(만 8세 이상)	4	1.3
무응답	15	4.9
전 체	305	100

[그림 Ⅲ-6] 자녀 수

[그림 Ⅲ-7] 자녀 나이

2. 가족 관계

1) 동거 중인 가족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조사한 복수응답 결과, 자녀 247명(46%), 배우자 150명(27.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본인의 부모 60명(27.9%), 형제자매 42명(7.8%)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 형제자매와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 중 자녀를 함께 키우는 청소년부모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계상으로 청소년부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 현재 동거인 여부 및 인원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자녀(임신 중 포함)	247	46.0
배우자	150	27.9
본인의 부모	60	11.2
배우자의 부모	17	3.2
본인의 형제자매	42	7.8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3
본인의 친인척	3	0.6
본인의 친구	6	1.1
배우자의 친구	1	0.2
기 타	4	0.7
전 체	537	100

[그림 III-8] 현재 동거인 여부 및 인원

2) 혼인신고 여부

배우자가 있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혼인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는 114명(36.2%),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122명(38.7%),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나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13명(4.1%),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는 2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적으로 청소년한부모로 인정되는 경우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별거' 하는 114명으로서, 이는 다른 응답에 해당하는 약 64%는 혼인신고로 인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부모임을 시사하며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혼인신고 및 동거 여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	29	9.2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별거	114	36.2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	122	38.7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나 배우자와 별거	13	4.1
기 타	37	11.7
전 체	315	100

[그림 III-9] 혼인신고 및 동거 여부

3)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황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0명(9.5%)을 제외한 285명(90.4%)에게서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녀의 출생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준 대상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부부로 된 경우가 154명(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의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되어있는 경우가 115명(40.4%), 자녀의 친부가 13명(4.6%)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5명(42.8%)으로 나타나고 있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혹은 친모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의 친모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된 경우라는 것을 볼 때, 여성인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출생신고 했음	285	90.5
출생신고 하지 않았음(출생신고 안 됨, 출산 전)	30	9.5
전 체	315	100

[그림 Ⅳ-10] 자녀의 출생신고 여부

<표 III-9>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황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우리 부부	154	54
자녀의 친모	115	40.4
자녀의 친부	13	4.6
본인의 부모나 형제	1	0.4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1	0.4
기 타	1	0.4
전 체	285	100

[그림 III-11]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상황

3. 학력 및 취업 실태

1) 최종 학력

청소년부모의 최종학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15명 중 고등학교 졸업이 141명(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퇴자가 58명(18.4%)으로 그 다음 많은 수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이 14명(4.4%), 대학교 졸업 이상이 23명(7.3%)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육을 완료하거나, 대학교 재학과 같이 고등교육에 진입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고

무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을 비롯하여 고등학교 중퇴에 이르는 비율이 총 31.9%이고, 대학교 중퇴(휴학) 역시 11.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학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청소년부모의 비율이 약 40%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0> 최종 학력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초등학교 졸업	2	0.6
중학교 중퇴(휴학)	14	4.4
중학교 졸업	19	6.1
고등학교 재학	7	2.2
고등학교 중퇴(휴학)	58	18.5
고등학교 졸업	141	44.8
대학교 재학 중	14	4.4
대학교 중퇴/휴학	36	11.4
대학교 졸업 이상	23	7.3
무학	1	0.3
전 체	315	100

[그림 Ⅲ-12] 최종 학력

2) 학업중단 이유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103명인데, 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점이 36명(3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던 응답자가 34명(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을 하기 이전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가 응답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이전 혹은 학업 초기부터 학교부적응 혹은 어려운 가정환경 등이 학업중단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부모들은 학교 밖에 머물게 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이것이 조기 임신 및 출산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져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II-11> 학업 중단 이유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음	34	33.0
출산을 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음	11	10.7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음	36	35.0
집안문제가 있었음	9	8.7
기타	13	12.6
전 체	103	100

[그림 III-13] 학업 중단 이유

3) 근로활동 경험

청소년부모의 과거 근로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이 213명(5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순노무직은 주로 식당 서빙, 카페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 다음이 판매직 46명(12.2%)으로 뒤를 이었고, 경험이 없는 경우도 36명(9.5%)로 나타났다.

<표 III-12> 근로활동 경험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사무직	25	6.6
판매직	46	12.2
서비스직	35	9.3
단순노무직	213	56.5
전문직 및 관련보조직	19	5.0
없음	36	9.5
기타	3	0.8
전 체	377	100

[그림 III-14] 근로활동 경험

4) 현재 직업 및 무직 사유

현재 직업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쉬고 있는 경우가 193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부모가 49명(15.6%)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에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부모는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이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3> 현재 직업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학생	20	6.3
쉬고 있음(휴직/휴학포함)	193	61.0
시간제, 아르바이트	49	15.6
종일근로	41	13.0
기 타	12	4.1
전 체	315	100

[그림 III-15] 현재 직업

<표 Ⅲ-14> 무직 사유

구 분	사례수(명)	비율(%)
마땅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	32	16.6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63	32.6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59	30.6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받는 시선 때문	5	2.6
학업 중에 있어서	28	14.5
건강이 좋지 못해서	4	2.1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2	1.0
전 체	193	100

[그림 Ⅲ-16] 무직 사유

4. 소득 및 부채 수준

1) 평균수입 및 수입원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50만원 이내가 82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가 65명(27%),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는 51명(16.2%)

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가 46명(14.6%),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내가 31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약 50%가 100만원 이내의 평균수입이 있으며 약 30%가량이 200만원 이내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최소 2인 이상의 청소년부모 가정의 80%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1인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248만원(통계청, 2019)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5> 월 평균 수입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50만원 이내	82	26.0
50~100만원 이내	65	27.0
100~150만원 이내	51	16.2
150~200만원 이내	46	14.6
200~250만원 이내	31	9.8
250만원 이상	20	6.3
전 체	315	100

[그림 III-17] 월 평균 수입

청소년부모의 주 수입원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배우자의 급여 113명(35.9%), 정부보조금(기초수급, 한부모지원) 102명(32.4%), 나의 급여 70명(22.2%) 순으로 (22.2%)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청소년부모 비율이 높았던 만큼 배우자급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보조금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조금(아동양육비)은 청소년부모의 소득수준(기준 중위소득의 약 52%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지원보조금 지원으로만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며, 사실혼 관계이거나 법적부부인 경우에는 이마저도 받기가 어렵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근로소득만 가질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주 소득원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나의 급여	70	22.2
배우자의 급여	113	35.9
가족의 급여	18	5.7
정부보조금(기초수급, 한부모지원)	102	32.4
친인척의 도움	3	1.0
지인의 도움	3	1.0
후원자 또는 지원시설의 도움	5	1.6
기 타	1	0.3
전 체	315	100.0

[그림 III-18] 주 소득원

2) 저축 상황

청소년부모 중 저축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315명 중 180명(57.1%)이며, 저축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35명(42.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저축을 하는 목적은

생활비(자녀 양육비)를 위한 예/적금이 112명(62.2%)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마련을 위한 예/적금이 58명(32.2%)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주거자금 마련이 가장 큰 경제적 필요이자 장기적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7> 저축 여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하고 있음	180	57.1
하고 있지 않음	135	42.9
전 체	315	100.0

[그림 Ⅲ-19] 저축 여부

<표 Ⅲ-18> 저축 목적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주거비 마련을 위한 예/적금	58	32.2
생활비(자녀 양육 등)마련을 위한 예/적금	112	62.2
학업 및 취업 비용 마련을 위한 예/적금	6	3.3
기 타	4	2.2
전 체	180	100.0

[그림 III-20] 저축 목적

3) 부채 상황

청소년부모의 부채상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부채가 있는 응답자가 119명(37.8%)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금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45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35명(29.4%), 그리고 500만원 미만이 31명(2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경우도 응답자 중 5명(4.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부채 여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부채 있음	119	37.8
부채 없음	196	62.2
전 체	315	100

[그림 Ⅲ-21] 부채 여부

<표 Ⅲ-20> 대출 금액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500만원 미만	31	26.1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5	29.4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45	37.8
5,000만원 이상~1억 미만	3	2.5
1억 이상	5	4.2
전 체	119	100

[그림 Ⅲ-22] 대출 금액

이 중 대출을 한 목적에 대해서는 329명의 복수응답 결과가 나왔는데, 자녀양육비/생계비 135명(41%), 주거비 마련(보증금/월세) 119명(36.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통신비(휴대폰 요금 등)도 50명(15.2%)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저축을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일상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어도, 그 정도가 미미하여 같은 목적으로 긴급하게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종합주택유형의 수도권 평균월세보증금은 59,534천원이고 지방권은 23,583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수도권 평균월세가격은 808천원, 지방권은 48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립다세대유형의 경우에는 수도권 평균월세보증금이 31,995천원이고 지방권이 11,527천원이며, 평균월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481천원, 지방권은 314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거비 마련과 관련된 시세와 앞선 청소년부모들의 월평균수입 현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부모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지원받는 금액 내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긴급한 대출로 이끄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Ⅲ-21> 대출 목적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주거비 마련(보증금/월세)	119	36.2
학업 비용(등록금/학원비 등)	20	6.1
자녀양육비/생계비(식비, 생활비. 공과금)	135	41.0
유흥비(pc방, 노래방 등)	5	1.5
통신비(휴대폰 요금 등)	50	15.2
전 체	329	100

[그림 Ⅲ-23] 대출 목적

이 같은 대출을 한 경로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177명이 하였으며, 이 중 은행(카드사, 보험사)을 통한 대출이 102명(5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를 제외하고 불법 대출업체가 17명(9.6%), 가족이나 친척이 13명(7.3%)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대출 경로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가족이나 친척	13	7.3
친구	14	7.9
은행(카드사, 보험사)	102	57.6
불법(미등록)대출업체	17	9.6
개인사채업자	7	4.0
SNS를 통한 개인대출	7	4.0
기 타	17	9.6
전 체	177	100

[그림 III-24] 대출 경로

5. 거주 실태

1) 임신초기/출산직전/출산직후 거주지

청소년부모의 거주실태를 살펴본 결과, 임신 초기 거주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161명(51.1%), 부모님 집에 거주 98명(31.1%), 미혼모시설 거주 28명(8.9%)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임시 초기 거주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부모님 집에 거주	98	31.1
미혼모시설 거주	28	8.9
형제자매 집에 거주	6	1.9
친구 혹은 지인 집에 거주	11	3.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자기 집)	161	51.1
기 타	11	3.5
전 체	315	100

[그림 III-25] 임시 초기 거주지

또한 출산 직전 거주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139명(44.1%), 부모님 집에 거주 105명(33.32%), 미혼모시설 거주 46명(14.6%)순으로, 임신초기 거주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출산 직전 거주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부모님 집에 거주	105	33.3
미혼모시설 거주	46	14.6
공공임대 주택	4	1.3
형제자매 집에 거주	4	1.3
친구 혹은 지인 집에 거주	9	2.9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139	44.1
기 타	8	2.5
전 체	315	100

[그림 III-26] 출산 직전 거주지

출산 직후 거주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141명(44.8%),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 집 99명(31.4%), 미혼모시설 거주가 42명(13.3%)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출산 직후 거주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141	44.8
미혼모시설 거주	42	13.3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 집	99	31.4
형제/자매 집에 거주	5	1.6
친구 혹은 지인 집에 거주	6	1.9
모텔, 찜질방, 고시원	2	0.6
기 타	20	6.3
전 체	315	100

[그림 III-27] 출산 직후 거주지

임신 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거주지 실태를 살펴볼 때, 청소년부모들은 자기 집 또는 배우자 집, 그렇지 않으면 미혼모시설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원가족 및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임신초기보다 출산 직전에 미혼모시설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았을 개연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에는 원래 거주하던 집보다 출산 및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집/시설 이외 거주경험

임신, 출산을 하면서 집과 시설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8명이었는데, 이 중 여관/모텔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6명(6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찜질방에 있었던 경우가 9명(23.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집과 시설 이외에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수가 많지는 않으나 다른 거주지를 찾을 경우에는 여관/모텔이 비교적 쉬운 선택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관/모텔은 청소년 전용 시설이 아니므로 청소년부모뿐만 아니라 동반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들 역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III-26> 집/시설 이외 거주경험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여관/모텔에 있었음	26	68.4
찜질방에 있었음	9	23.7
고시원에 있었음	1	2.6
기 타	2	5.3
전 체	38	100

[그림 III-28] 집/시설 이외 거주경험

집과 시설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머문 기간을 질문하였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14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8명(21.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7명(18.4%), 그리고 1개월 미만은 6명(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상 집과 시설이 아닌 곳에 머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3명(7.9%)이 있었다.

<표 III-27> 집/시설 이외 다른 장소에서 머문 기간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1개월 미만	6	15.8
1~3개월 미만	14	36.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8	21.1
6개월 이상~1년 미만	7	18.4
1년 이상	3	7.9
전 체	38	100

3) 시설입소 경험 및 미이용 사유

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220명(69.8%), 들어보았고 이용해 보았다가 82명(26%),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용해보지 않았다가 13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시설 입소 경험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용해보지 않았다.	13	4.1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았다.	220	69.8
들어 보았고, 이용해 보았다.	82	26.0
전 체	315	100

[그림 III-29] 시설 입소 경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복수응답으로 377명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으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이 힘들어서가 91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해서가 45명(10.7%), 시설에 산다는 주변 시선이 불편해서가 41명(9.8%)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공동생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 또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다는 점이 80명(21.2%)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사실혼 또는 법적 부부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29> 시설 미이용 사유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	80	21.2
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4	3.7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해서	45	11.9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이 힘들어서	91	24.1
시설에 산다는 주변시선이 불편해서	41	10.9
생활하던 지역 내에 시설이 위치하지 않아서	27	7.2
시설 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13	3.4
기 타	66	17.5
전 체	377	100

[그림 III-30] 시설 미이용 사유

미혼모시설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응답비율이 높았던 점은 시설 입소와 이용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입소하거나 이용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입소는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선택과 의지가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힘든 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설입소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데 적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불편하다는 답변도 있어 시설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 이용 그 자체로서 청소년부모라는 낙인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배우자와 생활할 수 없다는 점(80명, 21.2%)과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45명, 11.9%)도 주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사실혼 또는 법적 부부인 청소년부모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이들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하여 배우자와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이용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시설에서 청소년부모의 개인적 생활도 함께 보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부모의 시설입소는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이 시설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31] 집/시설 이외 다른 장소에서 머문 기간

4) 현재 거주지 상황

(1) 거주유형

현재 거주 유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빌라(투룸 이상)가 105명(33.3%), 아파트 90명(28.6%), 원룸이나 고시텔 57명(18.1%), 단독주택 39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0> 거주 유형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단독주택	39	12.4
빌라(투룸 이상)	105	33.3
아파트	90	28.6
원룸이나 고시텔	57	18.1
기 타	18	5.7
임시 거주	6	1.9
전 체	315	100

[그림 Ⅲ-32] 거주 유형

(2) 거주지 형태

거주지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의 형태가 140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가 59명(18.7%), 가족(친인척)의 집에 무상 거주한 형태가 48명(15.2%), 보증금 없는 월세가 2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와 친인척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임시거주인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31> 거주지 형태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보증금 있는 월세	140	44.4
보증금 없는 월세	21	6.7
전세	59	18.7
가족(친인척)의 집에 무상거주	48	15.2
지인의 집에 무상거주	1	0.3
자기 집	18	5.7
임시거주(찜질방, 모텔, 임시거주시설 등)	20	6.3
기 타	8	2.5
전 체	315	100

[그림 III-33] 거주지 형태

(3) 거주지 위치

현재 거주지 위치는 지상층이 278명(88.3%)이 대부분이었고, 반지하 14명(4.4%), 지하층과 옥탑방은 각각 5명(1.6%)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시거주지인 찜질방,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13명(4.1%)의 응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거주지 위치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지하층	5	1.6
반지하	14	4.4
지상층	278	88.3
옥탑방	5	1.6
임시거주(찜질방, 모텔, 임시거주시설 등)	13	4.1
전 체	315	100

[그림 III-34] 거주지 위치

(4) 거주지 마련방법

현재 거주지를 마련한 방법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본인의 원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84명(25.2%), 배우자의 원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이 52명(15.6%), 내가 모아놓은 돈 46명(13.8%), 배우자가 모아놓은 돈이 43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복지기관의 도움과 정부기관의 도움도 약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주지 마련과 관련하여 본인의 원가족이나 배우자의 원가족, 친척 도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청소년부모는 자립을 하기보다 부득이 원가족에게 의존하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력 이외에 부모 혹은 정부·민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거문제가 자립의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어 주변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III-33> 거주지 마련 방법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내가 모아놓은 돈	46	13.8
배우자가 모아놓은 돈	43	12.9
본인의 원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84	25.2
배우자의 원가족이나 친척의 도움	52	15.6
본인의 지인(친구)의 도움	9	2.7
배우자의 지인(친구)의 도움	1	0.3
이웃의 도움	1	0.3
정부기관의 도움	30	9.0
복지기관/지원센터의 도움	34	10.2
종교기관/후원기관의 도움	3	0.9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29	8.7
사채로 돈을 빌려서	1	0.3
전 체	333	100

(n=333, 복수응답)

[그림 III-345 거주지 마련 방법

6. 임신 및 육아 실태

1) 임신 연령

본 연구의 대상자가 출산을 한 연령은 19세 이하인 10대가 47%,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20대가 49.2%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18.7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8세가 17.1%로 가장 높았으며, 19세가 15.2%, 17세와 20세가 각각 13.7%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6] 임신 당시 연령대

<표 III-34> 임신 당시 연령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10대	만 14세	4	1.3
	만 15세	10	3.2
	만 16세	37	11.7
	만 17세	43	13.7
	만 18세	54	17.1
	만 19세	48	15.2
20대	만 20세	43	13.7
	만 21세	31	9.8
	만 22세	24	7.6
	만 23세	9	2.9
	만 24세	2	0.6
무응답		10	3.2
평 균		18.7	
전 체		315	100

[그림 III-37] 임신 당시 연령

2) 임신 시 가족의 조언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의 조언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배우와 아기를 양육하기를 권유한 경우가 84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태권유가 72명(22.9%),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경우도 51명(16.2%), 그리고 입양을 권유한 경우는 48명(15.2%)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아기를 양육하도록 권유한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낙태를 권유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거나 입양을 권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60%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는 임신을 했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을 나타낸다.

<표 III-35> 임신 시 가족의 조언 내용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결혼 권유	37	11.7
배우자와 아기를 양육하기를 권유	84	26.7
혼자 양육하도록 권유	14	4.4
입양을 권유	48	15.2
사회복지기관에 상담권유	1	0.3
알아서 해결하라고 함	51	16.2
낙태권유	72	22.9
기 타	8	2.5
전 체	315	100

[그림 III-38] 임신 시 가족들의 조언 내용

3) 임신/육아 정보습득

(1) 피임정보의 인지정도

임신 시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정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피임법을 들어보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다.'가 147명(46.7%)으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음이 107명(34%)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임법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 활용할 만큼 알지 못한다.'가 40명(12.7%)로 나타났다. '피임법을 정확히 알거나 들어보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80% 가까이 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들의 임신은 피임법에 대한 지식 유무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부모 관련 정책 연구에서 그동안 예방적 성교육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오면서 피임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10대 여성이 피임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10대 남성 대상의 적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III-36> 임신 시 피임법에 대한 인지 정도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피임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2	0.6
피임법을 들어는 봤지만, 관심이 없다.	19	6.0
피임법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 활용할 만큼 알지 못한다.	40	12.7
피임법을 들어보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다.	147	46.7
다양한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	107	34.0
전 체	315	100

[그림 III-39] 임신 시 피임법에 대한 인지 정도

(2) 정보습득 경로

다음으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171명(54.3%), 원가족으로부터가 36명(11.4%), 구청/동주민센터, 복지기관이 각각 23명(1.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이 그만큼 미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37>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정보습득 경로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인터넷 포털사이트	171	54.3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사이트	10	3.2
한부모상담전화 및 여성긴급전화	4	1.3
구청/동 주민센터	23	7.3
복지기관	23	7.3
미혼모단체	20	6.3
원가족	36	11.4
다른 청소년 미혼모	20	6.3
기 타	8	2.5
전 체	315	100

[그림 III-40] 임신/출산 및 양육 정보습득 경로

4) 출산 및 양육에서 어려움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239명(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127명(20.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를 위한 보육과 의료서비스 부족이 76명(12.3%)으로 나타났고, 산전 후 관리와 자녀양육법을 모르는 경우도 49명(7.9%)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자녀를 위한 보육과 의료서비스 부족	76	12.3
산전 후 관리, 자녀양육법 등을 모름	49	7.9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	239	38.5
불안정한 주거문제	74	11.9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	127	20.5
가족의 외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외로움	22	3.5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상의 어려움	33	5.3
전 체	620	100

[그림 III-41]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운 점

5) 원가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원가족의 경제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98명(31.1%)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78명(24.8%),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인 상황이 63명(20%),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아닌 상황이 63명(20%)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부모들은 대부분 자신의 원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질문에서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자녀양육을 비롯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III-39> 원 가족 경제상황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황	13	4.1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일반적 상황	98	31.1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78	24.8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인 상황	63	20.0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아닌 상황	63	20.0
전 체	315	100.0

[그림 III-42] 원 가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7. 청소년부모 지원요구

1) 정부보조금 지원상황

국민기초생활수급과 법정 한부모가족 등록을 기준으로 정부보조금 수급등록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둘 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160명(5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 다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60명(19%)이 있었다. 또한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만 등록된 경우가 59명(18.7%), 국민기초생활수급만 등록된 경우가 36

명(11.4%)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정부보조금 수급등록여부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만 등록되어 있다.	36	11.4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59	18.7
둘 다 등록되어 있다.	60	19.0
둘 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	160	50.8
전 체	315	100

[그림 Ⅲ-43] 정부보조금 수급등록여부

정부보조금 수급등록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총 194명이 응답을 하였고, 그 이유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128명(66%),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32명(16.5%), 필요가 없어서가 16명(8.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도 5명(2.6%)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필요가 없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적으로 정부지원 혜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수급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및 기준이 실질적 대상자에게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 III-41> 정부보조금 수급자 미등록 사유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128	66.0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5	2.6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32	16.5
필요가 없어서	16	8.2
기 타	13	6.7
전 체	194	100

[그림 III-44] 정부보조금 수급자 미등록 사유

2) 양육논의 대상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논의하는 대상으로 청소년부모들은 배우자 84명(26.7%), 가족 및 친척 81명(25.7%), 친구 57명(18.1%)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46명(14.6%)로 나타났으며, 같은 경험을 한 동료에게 논의하는 경우도 27명(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논의를 같은 양육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아닌 가족, 친구, 시설 담당자,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양육을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거나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2> 양육논의 대상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가족, 친척	81	25.7
배우자	84	26.7
친구	57	18.1
복지시설 담당자	16	5.1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음	46	14.6
같은 경험을 한 동료	27	8.6
기 타	4	1.3
전 체	315	100

[그림 III-45] 양육논의 대상

3) 현재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

현재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기타를 제외한 복수응답의 결과,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이 146명(30.5%), 주거비용(보증금, 월세 등)이 99명(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94명(19.7%), 심리/정서적 도움이 54명(11.3%), 주거에 대한 정보가 44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청소년부모들의 저축의 목적 및 대출용도 등에서 나타난 필요를 동일하게 반영한다.

<표 III-43>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주거에 대한 정보	44	9.2
주거비용(보증금, 월세 등)	99	20.7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146	30.5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94	19.7
심리/정서적 도움	54	11.3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도움	17	3.6
기 타	24	5.0
전 체	478	100

[그림 III-46]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4)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양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복수응답의 결과는 자녀양육비가 192명(30.7%),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184명(2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거지원이 68명(10.9%), 자녀보육서비스 지원이 50명(8%)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의료비, 보육서비스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청소년 부모가 자녀양육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Ⅲ-44>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복수응답)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자녀양육비 지원	192	30.7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50	8.0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23	3.7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184	29.4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68	10.9
청소년 미혼부모와 자녀에 대한 법적보호	16	2.6
청소년 미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 입소 지원	12	1.9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	9	1.4
직업훈련 및 직장 소개	35	5.6
상담서비스 제공	8	1.3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10	1.6
서비스신청의 간소화	7	1.1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 지원	5	0.8
사회적 인식 개선	7	1.1
전 체	626	100

[그림 Ⅲ-47] 양육에 필요한 지원제도

8.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 분석의 주요 결과와 그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각 실태조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는 배우자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자녀의 가족관계가 부부에게 등재되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인 경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청소년부모도 많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중등교육을 완료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하여 고등교육에 진입한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무학과 고등학교를 중퇴한 비율도 높아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학교부적응 혹은 어려운 가정환경 등이 학업중단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가정과 학교 밖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조기 임신 및 출산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낮은 최종학력은 안정적인 근로활동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부모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순노무직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높았고, 현재도 자녀 양육 때문에 정기적인 근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는 데다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의 재학생이 아닌 경우의 청소년은 근로능력대상자로 규정하여 각종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 이상의 소득을 가지게 되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근로대상이면서도 가계를 책임질 만큼의 근로능력을 갖추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주 수입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 비율이 높지만, 최소 2인 이상의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미성년인 청소년부모가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부모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과 취업을 계획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넷째, 임신 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들은 자기 집 또는 배우자 집, 미혼모시설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임신초기보다 출산 직전에 미혼모시설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았을 개연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에는 원래 거주하던 집보다 출산 및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같은 결과는 부모 또는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집과 시설 이외에 다른 거주지에 있었던 경우, 여관, 모텔에 머무른 경험이 있었다.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동반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들 역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이유로 적응의 어려움과 낙인에 대한 우려 이외에 배우자가 함께 살 수 없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유형도 월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거주 상황이 불안하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이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고 육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원가족의 반응에서 배우자와 아기를 양육하도록 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권유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거나 입양을 권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60%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경로는 인터넷이 가장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 경우도 드러났다. 이는 청소년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얻는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됨을 시사하며, 또한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서 자녀양육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마련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저축의 목적' 과 '대출의 목적' 이 생계비와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 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청소년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주거자금 마련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거비를 위한 대출과 저축은 생계비 부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 지원이 보

다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 Ⅲ-44>와 같다.

<표 Ⅲ-45>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실태조사 내용		주요 결과	시사점
가족 관계	동거 중인 가족	자녀(46%), 배우자(27.9%), 부모(27.9%), 형제자매(7.8%) 순으로 나타남.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 정부지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또한 혼인신고를 안 한 별거의 상태는 응답자가 여성이 많은 만큼 미혼모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도 큼.
	혼인신고 여부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의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남.	
	가족관계부 등재상황	응답자 315명 중 90% 이상이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였으며, 등재 기준은 부부 54%, 자녀의 친모(36.5%), 자녀의 친부(4.1%)순으로 나타남.	혼인상태를 한 청소년부모의 응답비율이 높았던 만큼, 부부에게 가족관계부 등재를 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력 및 취업 실태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44.8%), 고등학교 중퇴자(18.4%), 대학교 졸업(7.3%)순으로 나타남.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음. 임신 이전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부모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과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을 것임.
	학업포기 이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33%임.	
	근로활동 경험	단순노무직(56.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판매직(12.2%), 근로활동경험이 없는 경우도 9.5%로 나타남.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거나 전문적인 일에 참여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현재 직업	쉬고 있음(61%),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가(15.6%)로 많음.	
	무직사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32.6%),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30.6%), 이 밖에 마땅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16.6%), 학업 중에 있는 이유(14.5%)순으로 파악됨.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청소년부모는 주로 자녀양육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근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이고 있음.
소득 및	평균소득	50만원 이내(26%), 50만원~100만원 이내(27%), 100만원~150만원 이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100만원 이내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어,

		(16.2%), 150만원~200만원 이내 (14.6%) 순으로 파악됨.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주소득원	배우자 급여(35.9%), 정부보조금(생활기초수급,한부모지원)(32.4%), 나의 급여 (22.2%) 순으로 나타남.	동거 중인 청소년부모가 많았던 만큼 배우자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려워 정부보조금의 지원으로 생활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임.
	저축여부	저축을 하고 있음 (57.1%), 하고 있지 않는 경우(42.8%) 순서로 나타남.	현재의 생활을 위한 생계비와 함께, 장기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거비 마련에 대한 저축비율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저축목적	생활비를 위한 예/적금이 (62.2%), 주거비 마련을 위한 예/적금(18.4%) 순서로 나타남.	
부채 수준	부채여부	부채가 없음 62.2% 부채가 있음 37.7%로 나타남.	저축의 목적과 유사한 답안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생계를 위한 비용과 주거비 마련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상이 '청소년'인 만큼 통신비가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음.
	부채금액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7.8%),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35명(29.4%), 500만원 미만 31명 (26%) 순으로 나타남. 1억원 이상인 경우도 4.2%로 파악됨.	
	대출목적	자녀양육비/생계비 (41%), 주거비 마련(보증금/월세) (36.1%), 통신비 (휴대폰 요금 등) (15.2%) 순서로 나타남.	
	대출경로	은행(카드사, 보험사)을 통한 대출 (66.6%), 불법 대출업체(11.1%,) 가족이나 친척(8.4%) 순서로 나타남.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불법 대출업체의 이용률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미성년이었을 때 대출한 경우,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거주 실태	임신초기 거주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51.1%), 부모님 집(31.1%), 미혼모시설 거주 (8.9%) 순서로 나타남.	임신초기, 출산직전, 출산직후 거주지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높음. 가족과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못 받았을 개연성이 있음.
	출산직전 거주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44.1%,) 부모님 집(33.32%), 미혼모시설 거주 (14.6%) 순서로 나타남.	
	출산직후 거주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44.8%),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 집 31.4%), 미혼모시설 13.3%) 순으로 나타남.	

	임신/출산 시 집/시설 외 이용장소	응답자 315명 중 시설 이용경험자는 38명이었으며, 여관/모텔 거주(68.4%), 찜질방(23.7%) 순서로 나타남.	임신과 출산 시기에 숙박업소와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건강, 위생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등)을 내포하고 있음. 이를 위한 거주 지원책(단기, 장기적 대책)이 요구됨.
	집/시설 외 이용 경험기간	1개월~3개월(36.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21.1%), 6개월 이상 1년 미만(18.4%), 1개월 미만(15.8%) 순서로 나타남. 1년 이상 머문 경험이 있는 경우도 7.9%으로 파악됨.	
	시설입소 경험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69.8%), 들어보았고 이용해 보았다(26%),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용해 보지 않았다(4.1%) 순으로 나타남.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음. 시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주거지로 여겨지고 있음.
	시설 미사용 이유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이 힘들어서(21.7%),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 (19.1%).,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해서 (10.7%) 순으로 나타남.	
	현재 거주지 유형	빌라(투룸 이상)(33.3%), 아파트(28.6%), 원룸이나 고시텔(18.1%), 단독주택(12.4%) 순으로 나타남.	월세로 거주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주가 불안하고 단기적인 거주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실제 생계비에 거주를 위한 비용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시사함.
	거주지 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44.4%), 전세(18.7%), 가족(친인척) 집에 무상거주 (15.2%), 보증금 없는 월세(6.7%)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 위치	지상층 88.3%, 반지하 4.4% 로 나타남.	
	거주지 마련 방법	본인의 원가족이나 친척 도움(24.2%), 배우자의 원가족이나 친척 도움(15%), 내가 모아놓은 돈(13.3%), 배우자가 모아놓은 돈(12.4%) 순으로 나타남.	원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대체로 많이 받고 있는 경향을 나타냄. 이에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아 도움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임신/육아 실태	출산연령	19세 이하 47%, 20세 이상 24세 이하 20대 49.2%로 나타남.	출산의 평균연령이 18.7세로 나타나, 청소년부모는 10대에 출산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대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부모교육 필요함을 시사함.
	피임정보 인지정도	피임법을 들어보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다(46.7%), 다양한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 (34%), 피임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 활용할만큼 알지 못한다(12.7%)순으로 나타남.	

	임신 시 가족의 조언	배우자와 아기를 양육하기를 권유(26.7%), 낙태권유(22.9%), 알아서 해결할 것(16.2%), 입양 권유(15.2%) 순으로 나타남.	가족들은 자녀양육을 중요시하면서,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이지만 부모로서 양육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강화가 요구됨.
	임신 및 출산정보 습득경로	인터넷 포탈사이트(54.3%), 원가족으로부터 습득(11.4%), 구청/동 주민센터(7.3%), 복지기관(11.3%) 순으로 나타남.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의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하는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출산 및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38.5%),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20.5%), 자녀를 위한 보육과 의료서비스 부족(12.3%), 산전 후 관리와 자녀양육법을 모름(7.9%) 순으로 나타남.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진로와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큰 문제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 필요함을 시사함. 사회적 시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원가족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60% 이상으로 나타남.	청소년부모는 자신의 원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는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함.
청소년부모 지원 요구	정부보조금 등록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과 법정한부모 둘 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 160명(50.8%), 둘 다 등록되어 있다(19%),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만 등록(18.7%), 국민기초생활수급만 등록된 경우(11.4%) 순으로 나타남.	제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싶은 경우, 행정적인 홍보와 지원자 파악을 위한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정부보조금 등록되지 않은 이유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66%),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16.5%), 필요가 없어서(8.2%),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2.6%)로 나타남.	
	양육 어려움에 대한 논의대상	배우자(26.7%), 가족 및 친척(25.7%), 친구(18.1%),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음(14.6%) 같은 경험을 한 동료에게 논의(8.6%) 순으로 나타남.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약 15%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부모가 의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함.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 행정기관 및 복지기관 활용이 필요함.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30.5%) 주거비용(보증금, 월세 등)(20.7%),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19.7%), 심리/정서적 도움(11.3%), 주거에 대한 정보(9.2%) 순으로 나타남.	저축과 대출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부모들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 또한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거주지 마련방법에서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	자녀양육비가(30.7%),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29.4%),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거지원(10.9%), 자녀보육서비스 지원 (8%)순으로 나타남.	

Ⅳ. 청소년부모 면담조사 결과

본 장에서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면담조사는 원가족과의 관계, 임신 및 육아 경험, 학업 및 취업경험, 소득 및 주거 상황, 청소년부모 지원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1. 원가족과의 관계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성장과정에서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경우도 있었던 반면, 부모의 부재를 크게 느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원가족과의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강한 책임감'이었다.

> "저는 제가 장녀다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도 저한테 되게 의지 많이 하고. 동생들도 되게 저 좋아하고 제 막내는 바탕화면이 저일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되게 좋아 가지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그래서 되게 사이도 좋고. 엄마랑 동생들이랑은 사이가 되게 좋아요.(중략) 저는 임신하기 전에는 항상 동생들 생각만하고 딱히 애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워낙 애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긴 한데, 맨날 사촌동생 좋아하고. 동생들 좋아하고. 그러는 누나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가지고"(이○○ 님)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갖는 또 다른 감정은 '불안감'이었다. 이것은 대개 어린 시절 엄마 혹은 부모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이었다.

> "엄마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전 친엄마한테 자라는 시간이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낳은) 얘도, 얘도 날 원할 텐데. 막 이런 생각? 내가 필요한데."(강○○ 님)

> "저는 이제 엄마가 없고 아빠가 있었으니까 저는 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아빠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었던 게 항상 아빠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제가 못 가게 아빠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어디 도망갈 줄 알고. 그래서 막 잡고 깨가지고 '어디가 아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빠가 '화장실 간다, 놔라 이거.' 막 이랬던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아빠가 어디 가면 어떡하지? 날 두고 어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많이 컸어 가지고. 그게 (제 아이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기 낳고)병원에 있을 때도 못 데리고 있었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임○○ 님)

2. 임신 및 육아 경험

1) 임신에 대한 늦은 자각

면담조사에 참여한 5명의 청소년부모는 19세 이하 미성년 시기에 자녀를 임신하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초기에 임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비나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태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대로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러 다녔다.

"저는 되게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8개월 때 알았어요....제가 항상 싸매고 있고,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뱃속의 애기도 엄마가 임신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점점 나온대요. 근데 제가 배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약간 똥배처럼 나오고, 그때 한참, 다이어트 하고 있어 가지고, 안 나와서, 친구도 그냥 변비 때문에 그런 줄 알고.....(중략)...나중에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니까 이미 애기가 너무 커서, 지울 수가 없다고." (이○○ 님)

"임신테스트기를 했는데, 바로 두 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니까. 일단은 인터넷에 막 뒤져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엄청 쳐보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임신테스트가 흐리면 모르겠는데, 진하게 두 줄 나오면은 빼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겠지. 아니겠지. 잘못된 거겠지. 두 개하고, 세 개하고, 네 개하고 막 다섯 개 하고 그랬는데, 계속 다 두 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그 상태로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지냈어요. 계속 잠만 자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몇 일인지 몇 시인지도 모른 채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지내다가 어느 때 보니까. 막 태동? 태동이 그냥 밥 먹고 소화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엄청, 그냥, 그때는 속이 막 가벼워졌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경험담이 없으니까는 혼자 막 버티

다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tv속에서 노래 나오면, 애기가 그 리듬에 맞춰서 태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기 섰나 보다.” (강○○ 님)

하지만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랐고, 자신의 신체적 반응에 대하여 미처 생각을 못하였다. 비록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임신한 이후에도 임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태아를 위한 태교 등과 같은 준비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였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피임법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50% 이상이었지만, 임신 이후의 대처와 책임의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보통 그냥 학생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설에 보면 18살인 친구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애 키우는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성교육 같은 걸 할 때.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도 완전 남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되어보니까. 다들 남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이런 부분도 알려줬으면 좋겠고, 피임하는 방법 같은 거랑. 자세하게 설명하게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전혀 안 알려주고. 그런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 어떻게 출산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애 낳는 게 아프다고만 들었지. 막 몇 시간 진통이 있고 그런 것도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님)

“전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전 겁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애 임신했다는 그 주가 2준가, 3주 때 제가 바로 알았거든요. 그때 바로 지우려 했는데, 겁이 많고 일단, 제가 무서워서 못 지웠죠. 일단 그러다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는 그 때는 너무 커서 못 지우니까. 너무 커버려서 지울 수가 없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낳은 거예요.” (강○○ 님)

2) 임신 당시 주변의 반응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남자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임신 사실을 자각했을 당시는 남자친구와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헤어진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들은 대개 ‘부정’ 하거나 별

다른 고민 없이 ‘낙태’하자는 반응을 보이곤 했다. 남자친구의 일한 반응과 태도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녀 친부로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함께 양육을 할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친부와 결혼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남자친구(아이 아빠)도 (임신을)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에이, 잘못 나온 거겠지’ 자기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이거(임신테스트기) 잘못 나온 적 많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잘못 나온 걸 거야’ 막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렇게 막 망했다 이러고서는 그냥 무시를 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중략) 그리고 그런 게 있고 나서 세 달도 안 지나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님)

“(임신했을 때) 만나고 있지 않았어요. 헤어진 상태였어가지고. 낳고 나서, 낳고 나서는, 근데, 사실상 저는 별로 같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었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러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육아는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아이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못살 것 같더라구요.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할 바엔 그냥 나 혼자서 어차피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 내가 이 친구(아이)한테 모든 것을 쏟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너가 안 봐도 좋아. 나는 너한테 보여줄 생각도 별로 없어. 그냥 너가 너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양육비만 지원해줘 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무래도 스무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놀라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피를 했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주는 걸 받았는데, 처음에는 잘 보내주시다가 안 보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연락을 안 받거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보여주지 않을게. 그러면 너도 나중에 되서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지마. 그리고 난 너랑 이제 연락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졌죠.” (안○○ 님)

“(아이 아빠는) 지우자는 쪽이었죠. 지우자는 쪽이었어요. 그냥 어린 나이라서. 툭 던진 말이 그, 뭐지? 야메(불법) 낙태 알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애기 낳으면 돈 더 깨지니까 여기서 잡자. 이래가지고. 그 말에 한 번 충격 받고(중략) 일반 솔직히 다 불법적인 곳이지만 솔직히 산부인과에서 딱 정해진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반 병원에서 해도 후유증 같은 게 많은데 불법 낙태하면 어디 장기 하나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살고 싶은데. 뭐, 저도 죽어야 된다는 말 같아서.” (강○○ 님)

"처음에는 같이 살았어요. 한 3, 4개월 정도까지, 애기 3,4,5개월까지는 살았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이왕 낳은 거 잘 키워보라면서, 막 결혼, 결혼식까지 할라고 했었는데. 그 남자애한테 제가 완전 정이 떨어져가지고...술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한테 장난치듯이 손찌검을...(중략)...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걔랑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어차피 얘가 애 아빠라는 사실이니까. 얘랑 살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 (감○○ 님)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임신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이 대개 출산을 이미 앞둔 시기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대체로 출산 후 입양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출산 후 얼마간 자녀를 입양 보내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음부터 아예 입양까지 생각하기 어려워한 경우도 있었다.

"아빠도 처음에는 입양 보내자고 이런 얘길 하다가, 제가 계속 키우고 계속 아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예뻐 많이 하시고 하다보니까, 아빠도 계속 걱정이 되셨던, 제가 막내다 보니까. 어떻게 너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같이 합쳤는데, 지금은 제일 좋아하세요." (안○○ 님)

"주변에서는 계속 지워라. 너는 어리니까 낳아서 입양을 보내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계셨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애를 지운다는 것은 솔직히 이단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입양을 보내면 나중에 쟤가 거기서 입양아이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 때 애가 받게 될 상처 이런 것이..(중략).. 그게 저는 애한테까지 그런 것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게 컸어요." (임○○ 님)

"이게 입양에 대한. 요즘에는 편견이 없기는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보냈는데,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약간 막 이런 생각도 괜히 혼자 들고,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보육원 같은데 갔는데 막 학대당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 딸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엄마께서 그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못 보낼 것을 알고 있었대요. 제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이○○ 님)

"애기 백일 될 때 부모님한테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아빤 쓰러지시고. 엄마는 대성통곡하시고. 엄마아빠 평생 못 보나 이러고 있었는데, 시설에서 찾아오셨어요. 입양서류 같은 거 다 떼 오셨는데. 애기 보내자고. 막 식구들이 다 와서 저한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언니가 잘못했으니까...애기 보내자. 너 어린데 어떻게 키우냐. (중략) (가족들에게) 안 도와줘도 된다고 혼자 키워보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계속 한 일주일간 숙려기간 있었거든요. 입양. 어느덧 키우니까 2개월 되고 3개월 되니까. 뭔가 시설에서 애기랑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애기 클 때까지 누군가에게 기대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시설에 있으면 다 지원해 주니깐 거기 계속 의지를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애기 어린이집도 보냈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해 봐야겠다 하고 나갔었어요. 퇴소하게 됐어요.” (강○○ 님)

반면 재학 중 임신 사실을 안 경우에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도치 않게 학교와 친구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거나 잠적함으로써 직접 임신 사실을 알리기를 회피하였다.

“임신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를 낳았는데, (중략)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그 시점에서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랑 보건선생님이 말씀 나누시는 것을 저희 반 애들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말이 이렇게 좀 커지고 부풀려지고 그런 게 좀 심해져서 그 뒤로 학교를 안 나갔죠. (친구들은) 구체적으로는 제 귀에는 안 들리는데, 수근 거리는 게 들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 생활하는 게. 그래서 안 나가야지 안 나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임○○ 님)

“그 수능 끝나고 안 거여서. 수능 끝나고는 거의 학교를 안가니까. 뭐 그랬었으니까. 그냥 여행갔다고 하고. 잠수를 탔었거든요. (중략)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 두세 명한테 밖에 (얘기)안하고.” (안○○ 님)

3) 부모로서의 경험

참여자들은 아이를 대면한 후에는 가족의 바람과 달리 자신이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가족들 역시 출산한 아기를 대면하고 난 후에는 부모로서 연구 참여자의 의지를 이해하고 직접 양육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 자녀양육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도 하고 삶을 새롭게 계획하기도 하였다. 양육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거나 자신의 부모와 같은 양육자가 되기 않기를 목표로 하기도 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출산하고 아이 아빠한테) 처음에는 되게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거나, 내가 못 놀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데..(중략)..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좀 나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중략) 아이가 조금씩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걔(아이 아빠)가 아니었으면 아기가 저한테 없는 거니까. 지금에서는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임○○ 님)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가 컴퓨터 중독자여서, 십 년 동안 저희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별로 엄마아빠한테 그렇게 감정이 없어요. (중략) 제 부모님처럼 저는 애기를 놔두고 혼자 방치하진 않을 거구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별로 엄마아빠한테 그렇게 감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단지 불쌍해서. 엄마가 가족이 없으니까. 불쌍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를 키웠으니까." (감○○ 님)

"신생아 때는 딱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내가 이 갓난 애기를 기저귀 갈 때 엄마라고 느꼈고. 좀 컸을 때는 저한테 애기가 기어오거나 달려올 때 내가 엄마구나 이런 거랑. 이제는 진짜로 느꼈을 때는 입에서, 엄마라는 말을 했었을 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라고 (중략) 그냥 엄마라, 나는 엄마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욕구를 참을 수 있는 것같아요. 이거 사고 싶은데, 아 나 엄마지. 애기 좋은 거 하나라도 좋은 거 해줄 수 있는 돈이지.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기만 예쁘게 꾸며 놓고 사는, 엄마들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애기도 예쁘게 꾸몄으면서 저도 예쁘게 꾸며서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린이집 보낼 때에도 씻고, 저도 씻고 저도 준비해서 데려다 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애기 집에서 이런 취급 받으니까 잘 봐 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래가지고 저도 그런 마인드여서. 어리니까 무시하지 말고 애기 잘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강○○ 님)

"어쩔 수 없이 낳아서. 그냥 낳아서 입양 보낼 마음으로 낳았는데. 또 낳고 보니까는 너무 이뻐요 애가.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키웠어요.(중략) 요즘 애기를 낳아도 입양 보내거나, 자기가 안 키우려고 하거나. 아니 솔직히 막말로 요즘 뉴스에서 애기 그냥 두고 막 가는 부모가 어린 부모 많잖아요. 혼자 미혼모 중에서 근데, 전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지금 전 충분히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기를. 어디 가서. 부모님이 나이 어린 부모님이거나, 아빠 없는 거. 솔직히 티는 별로 안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처음에는 몰랐

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저는 티 안 나게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감○○ 님)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모성애가 생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 아이에게 모성애가 있어라고 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래서 키우다보고, 이 아이랑, 뭐 재롱도 부리고, 뭐 엄마라고, 기어 다니고 뭐, 이러는 순간부터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면, 아이가 커가면서 보면서 그냥 뭔가 모르게 뿌듯할 때도 있고. 자는 아이를 보면서 울 때도 있고. 이상한 감정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가 기저귀를 뗐을 때, 뭐 아니면은 스스로 뭔가를 자립해가는 순간을 보면서 이게 막, 울컥하는 순간이 있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 아이한테는 제가 세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경제적인 것도 엄청 많이 노력하려고 많이 하고.” (안○○ 님)

4)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당한 시선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청소년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부모로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주변 사회의 시선은 편치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주변 사회에서 어린 부모 혹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자신에 대해 ‘안쓰러운 존재’,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멋있다고 격려해주거나 동정이 아닌 도움을 주며 있는 그대로 지켜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지금도 제가 애 데리고 다니면,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딸이냐고. 그래서 제 딸이냐고 하면서 꼭 물어보세요. 애 아빠는 어디 있냐고...혼자 키운다고 하면, 절 안쓰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중략) 저랑 제 아이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잘 살고 있는데 안쓰럽게 보니까. 그게 좀 제일 싫은 것 같아요. 그 말 듣는 것이 제일 싫은 것 같아요. (중략)근데 저는 제 자신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결정을 한 것에 있어요. 좀 그냥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안쓰럽다는 말 말고 애기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만 있지는 않더라구요.” (이○○ 님)

“제가 애기 낳았을 때 열일곱 살이었으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사람들이 보는 눈이, 참,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진짜 옛날에는 막, 어릴 때 애 낳고

막 그러셨을 텐데. 그러신 걸 아실 텐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 꼭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객관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미혼모는 그냥 막, 애 낳을 거면 조용히 낳고 살아라 이런 마인드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애기 데려오면 막 버스나 지하철타면 할머니들이 막 젊은데 애기가 있네. 이러면서 할머니들은 막, 요즘, 요즘 시대가 참 불손, 뭐라고 해야 돼지? 불손하다? 막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진자 엄청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시면 이제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쓰냐. 신경쓰지 마라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참고 살았어요.” (강○○ 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이러한 주변의 부당한 시선에는 자신들이 겪는 실제 상황보다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 각자는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미디어는 부정적인 모습만 보도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나이만 어린 거지. 우리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좀 그런 뉴스가 많잖아요. 어린 부부인데, 애기 방치하고 맞거나 이런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물론 저도 그걸 보면은, 얼마나 놀고 싶으면 그랬겠냐라는 생각도 갖고 있긴 한데(중략)..우리나라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건이 터지면 그 무리를 싸잡아서 묶어놓고 욕하는 것이 크니까. 저는 그런 뉴스가 인터넷에 기사화가 되고 이럴 때마다 쪼금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중략)..저는 굳이 네가 기죽을 필요없다. 당당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구요.” (임○○ 님)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중략) 친구들은 너를 보면 세상에 미혼모는 불행하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왜 미디어에서 안 좋게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자꾸 소외된 계층, 물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동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위에 어르신 세대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입을 보냈으면 그것도 손가락질을 하셨을 분들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안○○ 님)

3. 학업 및 취업경험

1) 학업지속을 위한 노력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부모들의 학력은 무학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개인마다 여러 차이가 있었지만, 면담대상이 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모두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자들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소년부모가 60%이상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하고 난 이후 학업을 중단 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임신 이전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많았다. 이는 애초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에 뜻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학력 수준 혹은 학창시절의 경험이 어떠하든 현재 육아를 하면서 부모로서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은 욕구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를 낳았는데...18살에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기 시작해서 작년 21살에 졸업을 했어요. (중략) 일단 편입해서 간호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급여도 적고 너무 이게 비교가 많이 되니까. 차라리 할 거면 좀 더 공부해서 간호사를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중략) 일단은 제가 일제 일하면서 육아하면서 대학까지는 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학점은행제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면 2년제든 4년제든 학위가 나오고 그걸로 편입을 해서 갈 수 있다 하더라구요." (임○○ 님)

"검정고시 따야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갈 수 있거든요. 시험도 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도 해서 따야 되는데. 제가 저번, 저저번 년도에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공부 알려줄 사람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 갖고.(중략) 근데 많이 어렵더라구요. 공부, 공부를 연필을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만 잡고 그 뒤로 안 잡았으니까. 학교에서 막 자고, 막 그래서, 연필 안 잡은 지가 오래 되가지고..." (강○○ 님)

"애기를 키우면서도 요즘에 막, 공부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잖아요. 뭔가 더 배우고 싶고. 좀 많이 아직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감○○ 님)

2) 육아로 인한 취업의 한계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양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구청이나 주민 센터 등에서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직업을 구하거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 인식과 부정적인 시선이 여러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비와 주거비를 벌기에 부족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있었다.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하도 애기를 다들 늦게 낳으시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낳아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애기는 몇 살이고 제 나이는 몇 살이고 물어보면은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낳은 게 다 들통나더라구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인식이 좋지는 않으니까 너무 일찍 낳아서. 그것 때문에 좀 나이 같은 것 물어보고 하면은. 되게 말하기가 꺼려지더라구요." (이○○ 님)

"구청에서도 성인되셨으니까 일해야 된다고. 수입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또 공부할까 생각중이에요. 저 원래 그거 했거든요. 간호조무사 공부했다가 애기가 갑자기 잔병치레 많이 해가지고 그만둬가지고. 다시 할까 생각중이에요. 주민 센터에서 그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막 주민 센터에서 일자리도 해줘요. 수급자끼리 막 뭐하던데. 어린이집 집 갈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자리도 있대요. 맞춰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강○○ 님)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부분 거의 좀 정시퇴근이란 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기 있다는) 얘기를 해요.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 사무직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절대 주말에는 출근을 못하고 이런 시기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적혀있는 출퇴근 시간이랑 거의 다르더라구요. 뭐 9시 퇴근, 6시 출퇴근 이렇게 적혀있는데, 알고 보면 8시에 출근해서 좀 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리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긴 하죠. 이제 조금 아이가 더 크면은 뭐, 직원으로도 시간적으로 쉬는 날의 제한이 조금 더 커지면 커질수록 별로 없어지니까. 고민 중이에요. 계속 이런 서비스직에서 일을 해야 할 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 봐도 될지. 이게 제가 무너져버리면 아이도 무너져버리는 거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 뭔가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괜히 다른 길을 가서 더 갑자기 이 자리를 잘 잡고 있던 게 힘들어져 버릴까봐. 주춤하게 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안○○ 님)

"(쉬고 있는데) 일자리도 없고. 애기 좀 더 보고 싶어서. 좀 더 애기한테 집중하다가 일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애기가 요즘 뭔가 심통한지. 성격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친구들 때리고 막 그래 갖고, 어린이집에서 짱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교육 좀 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하느라고. 일을 시작 안하고 있어요. (중략) 지금까지는 다 서빙이었던 것 같아요. 임신했을 때도 서빙하고, 카운터 일하고, 계속 서빙이요.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강○○ 님)

4. 소득 및 주거상황

1)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향후 자녀양육에 대한 대비와 주거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부모들이 응답한 저축 목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면담에서도 확인되었다.

"어찌 되었던 자립을 해야 되니까(저축해요).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생각하고, 아이랑 여행도 갔다 와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모으는 것에요. 사실상은 그냥 보증금 모으는 느낌으로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집 마련하려고." (안○○ 님)

"세금 떼면 148만원에서 150만원 정도(LH주택공사 임대로 있어서). LH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 준거지,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 한 달에 59,000원에서 60,000원 정도 이자가 나가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이 다 추위를 (타고). 애기도 추위를 많이 타고. 그래서 사계절 내내 가스를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가스비랑 제 핸드폰비, 수도세 이런 거 내고. 그 다음 또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은..아기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비 내려고." (감○○ 님)

2) 주거를 위한 선택으로서 시설 입소와 그 한계

연구 참여자들이 생계비와 주거에 대한 곤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은 출산 시기 즈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주거의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아직 청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시설을 통한 공동체적 생활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고 보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했다.

> “임신하고서부터 계속 시설에 있었는데..(중략)...일단은 주거나 제공이 되다 보니, 그만큼 나가는 돈이 적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주거 제공해주는 게.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이 계셔서 궁금한 것이나 이런 것들 여쭤 볼 수 있어서 이런 점이 큰 것 같아요.” (임○○ 님)

> “시설에서는 재미있게 살다 왔어요. 동갑내기 애들이랑.(중략) 시설에서 저랑 동갑내기 애들이 애기 키우는 것 보고. 쟤네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이러면서. 한 것 같아요. 되게 시설에서 진짜 애기 열심히 키웠어요.” (이○○ 님)

하지만 시설에 입소하여 지내는 것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입소자인 엄마들 사이에 혹은 자녀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자책감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막 기저귀랑 분유문제도 있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힘드셔서 그만두셨어요. 다, 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기 기저귀랑 분유 같은 것도 한정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후원 들어왔는데, 후원도 안주시고. 막 그래갖고. 애들도(시설입소자) 못된 짓을 했어요. 분유가 남으면은 인터넷 같은데 올려서 팔기도 했고. (중략)입소자가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예민한 애기 엄마들도 있고, 예민한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면 다 아픈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애기가 아프면은 방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신생아들도 많은데, 생각이 좀 없는 엄마들이 나와 가지고 막 애기 이쁘다고 만지다가 막 감기 옮기고, 막 장염 옮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선생님들 다 자제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는 게 있거든요. 가족회의 같은 거. 하면서 불만 같은 것도 말하고 원하는 것도 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계속 말해도 말도 잘 안되고. 병원도 잘 안 데려가 주시고. 막 엄마들 혼자 가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강○○ 님)

> “시설에 있으면서 자꾸 룸메이트 언니 애기랑 제 애기랑 조금 충돌이 일어나니깐 그 중재 역할이 힘든 것 같아요. 제 애가 좀 어렸을 때는 자기가 당하다가. 좀 더 크니까는 이제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 애기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아들이다 보

니까. 힘이 주체가 안 되고 너무 세요. 요즘에는 아란이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겁을 먹더라고요. 그 애만 보면, 요즘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내가 중재 역할을 못 해가지고. 무서워하나 싶고.” (이○○ 님)

3) 안정적인 집에 대한 희망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자신의 집을 가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집을 소유하고 싶었던 이유의 시작은 달랐으나, 결국 자녀와 둘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다.

“제 이름으로 된 진짜 대출을 LH말고 진짜 집 갖고 싶어요(중략). 예전부터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 다 월세 살고, 부모님이 월세 살고. 내 집이 아니었고. 그 집이 좁고 지하에 살고 맨날. 그래가지고 집에 만들이 남들이 그냥 친구집 놀러 가면, 애들이 그냥 평범한 집에 사는 게 그냥 부러웠어요. 저는 왜냐면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평범한 집을 갖고 싶어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그냥 빌라. 평범한 집.” (감○○ 님)

“원룸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걸렸어요. 근데 거기는 원룸이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도 없고 시설에서 살았을 때도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 없는데 일단 애기 임신 했을 때 모았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계속 막 버티고 살았거든요. 시설에서. 애기 물건 같은 것도 모자란 것 있으면, 제 돈으로 사야 되니까. 일단 애기 필요한 거 다 사고, 사고, 산 다음에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최대 600만원에다가 처음에 일자리도 막 못 구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 갖고 수급자로 받다가 그것도 남한테 도움 받는 거니까. 계속되면 언제까지 기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한부모 혜택으로 바꿔가지고 일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강○○ 님)

5. 청소년부모 지원요구

1) 실질적인 성 교육 및 부모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임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신생아 위

생교육, 응급처치, 연령별 놀이법 등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위해 알고 싶은 관심과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그런 기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다. 시설에서 정보를 얻거나 손쉽게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기는 하지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성교육에서는 뭐, 피임을 하자. 아니면, 임신을 하면 열 달 뒤에 아이가 나와. 뭐 이런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두 세 시간에 한번씩, 그리고 아이는 한 번 잠을 쭉 자는 줄 알았지. 이렇게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좀 그런 정보가 없다보니까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태열이라는 것도 몰랐었고." (안○○ 님)

"저 유튜브 같은 데 그런 거 많이 보죠. 21개월 행동 같은 거? 인터넷에도 21개월 행동이나 놀이 그런 거 알아보고. 애기한테 좋은 물건은 다 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같이 노는 시간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놀러 다니고." (중략) 애기 낳고 나서 애기가 하도 말썽 피우고 정말, 처음에는 제가 애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애기 울음소리가 싫어서. 애기 울음소리 듣다 우울증 온 것도 있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울어대니까. 밥 달라고. (중략) 그러다가 이제 막 그렇게 성격에는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게 고쳐,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가끔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많이 죽었어요. 성격이. 애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게 많아서." (강○○ 님)

"(지금 시설에서 알려줘서 괜찮은데) 그래도 갑자기 애기가 막 응급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계속 저는 막 어릴 때 얘가 막 혈변보고 이런 것이 커가지고 병원에 진짜 거의 매달 한 두 번은 꼭 응급실을 갔었던. 이제 나도 엄마가 처음인데, 나도 모르는 게 많은데, 얘가 이렇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내가 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것도 되게 난감하고 어렵더라구요. 그게 조금 어려웠어 가지고." (임○○ 님)

"애는 점점 커 가는데,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개월 수마다 반응해줘야 되는 것도 다르고 하는데. 음,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게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가끔 막 더해줘야 되는 것인가 싶고." (이○○ 님)

2) 정부보조금 제도의 개선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현재 제도가 자신들의 생활 개선에 많은 부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원마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한부모가정 보원금은) 만족 못해요. 우리나라 출산이 낮은 나라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들 물가는 비싼데 나라에서 준 돈은 적으니까. 다들 안 낳는 건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모르겠어요.” (강○○님)

> “(국민기초생활수급 받고 있는데)만족도가 낮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생계비에서 솔직히 80만원으로 산다는 거 자체도 너무 제한적이고...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라밖에 안보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벌면서 수급을 유지하면, 이 사람이 정말 탈 수급을 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뭔가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생계를 돕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OK 너 일하면은 너는 일했으니까, 수급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게 되다보니까. 좀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아니면은지 문제에서도, 막 다른 나라는 이제, 미혼모 워낙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집 같은 거를 그래도 살 수 있게 주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네가 살고 싶어도, 너 600만원이 있어야 돼. 아니면 너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안○○님)

3) 주거마련을 위한 지원확대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LH나 공공임대 주택 등과 같은 제도들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들이 조건상 1순위는 되지만 막상 입주하기 위해서는 큰 액수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보니 선정과 실입주 사이의 간극, 그리고 입주자격 유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집을 구할 때 크기에는 제한이 있고, 양질의 환경이 아닌 지역 환경에 있는 주거지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가 가능한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비용지원이나 주거지 지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나라의 지원을 받고 싶은 거지.(중략) 단체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주거 복지 시스템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제가 가출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가 정말 망해야만 도와 줄 거야' 라고 밖에 안 느껴지더라구요." (안○○ 님)

"(LH 계약 조건은) 한부모가 1순위어가지고. 그 선정되기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엄마들말 들어보니까. LH가 1억 2천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1억 2천인 집이 거의 없데요. 보통 1억 3천이나 5천 정도는 돼야지 애기랑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억 2천짜리 집을 구하자니, 여기 ○○구 쪽은 되게 1억 2천이면 낡은 집이래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고 해서. 애기랑 살기 좀 나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집이 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애기라 단둘이 살 건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조 인테리어도 그렇고. 좀 좋은 집에서 살려면은 적어도 1억 3천은 돼야지. 집이 좋다하더라구요" (이○○ 님)

4) 손쉬운 정보접근을 위한 개선 요구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구하거나 어려움을 논의할 때, 생계와 주거에 대한 정보를 구할 때 인터넷, 복지기관, 가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부모들이 정보를 습득할 때 인터넷을 활용하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과 같이 손쉬운 정보접근을 위한 개선 요구를 드러내고 있었다.

"보통 제가 근무하면서 가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나는 이걸 처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별로 없고 만약에 원하면 주민 센터 가서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데 주민 센터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공유되는데." (임○○ 님)

"저는 자활을 할 때 제가 정말 어리다보니까, 사회복지사 분들이 엄청 많이 챙겨줬어요. 정보도 엄청 많이 주시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찾아봐주셨는데. 하는 말이

그거더라구요. 네가 안 찾아보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지원은 네가 직접 찾아야만 받을 수 있다고.” (안○○ 님)

“(고민이 있어도)제가 원래 제 속마음을 잘 말을 못해 가지고 남한테 상의를 아예 안 해요. 엄마한테도 안하고, 왜냐면 엄마랑 그렇게 막 속마음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아이를 돌봐주지만) 엄마한테 말을 못하겠어요.(중략) 애기 키우다보면은 힘들 때도 많고, 솔직히 저 가끔 막 제가 다혈질이 심해가지고, 욱할 때 많거든요.(중략)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속마음을 다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상담을 해주는 그니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많아요.” (감○○ 님)

6.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부모에 대한 면담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라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대처방안과 책임의식을 성교육에서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자신이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자각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과정에서 스스로 여러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들은 처음 이들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서 주로 낙태를 권하게 되었지만 이미 그때는 낙태시기가 지나고 난 뒤인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임신을 자각하였더라도 병원에 늦게 찾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임신 중 신체적, 정서적으로 적절한 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조산의 위험마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양육 선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실질적인 성교육과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부모의 생계와 주거지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청소년부모는 주로 생계비와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자 대부분은 대출과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향후 필요한 가장 필요한 제도로서 양육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청소년부모의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생계 및 주거마련

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부모는 육아와 주거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논의하고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場)'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보면,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과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10% 남짓이었으며, 누구와도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는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곳에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Ⅴ. 국내외 청소년부모 지원 사례

본 장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국내외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및 민간 사례를 알아보고, 해외의 관련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국내 사례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미혼부모 생활지원 관련 정책과 이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유관단체의 지원 현황과 그 내용 및 지원 추진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청소년 미혼부모를 중점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로서 사단법인 링커와 러브 더 월드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국내 청소년부모 지원 실태를 드러냄으로써 국내 상황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 정부

국내에서 청소년 미혼부모에 대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이루어져왔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현금지원이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권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써 지원받는 것이 있다. 더불어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는 청소년한부모로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 부 또는 모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비(검정고시학습비, 고교교육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원종류 중 자녀대상의 아동양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시설지원이다.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시설입소의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사실상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탁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에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 가

족 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부모들은 각 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서 출산 후 공동생활지원형에서 초기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은 최소 6개월에서 연장 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재가 청소년 미혼부모를 위한 서비스 지원이 있다. 이는 주로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재정지원이나 병원비, 생필품비,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임신 및 출산 시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및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최근에는 좀 더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지난 2018년 2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 및 찾아가는 상담과 사례 관리 강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상담 강화 및 사례관리 추진이다. 미혼모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제공 코너를 신설하고, 한부모 상담전화를 단순 정보 안내 중심에서 충분한 상담·공감·격려 방식으로 전환하며, 미혼부모 거점기관(전국 17개소)을 두어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지원 실시한다.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그 추진체계는 [그림 Ⅴ-1]과 같다.

둘째, '혼자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소년 미혼부모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현행(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에서 72%로 확대하여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등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대학특별전형이나 공직채용할당,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과 같은 비현금성 지원 역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 역시 2018년 기준 월 18만원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비양육부모 역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한시적 양육비 역시 국가에서 최장 12개월까지로 연장 추진하여 월 20만원씩 지원하고자 한다.

[그림 Ⅴ-1] '좋은 청소년부모 프로젝트' 추진체계

셋째,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 지원이다. 청소년 미혼부모들의 학습지원 확대 및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확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용품비를 포함한 검정고시 비용 등을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나 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취업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밖에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 가능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한 심리치료, 무료법률지원 등의 방안 역시 마련해놓고 있다.

넷째,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개최하여 사회적 편견·차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비양육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책임 강화 등을 도모해나가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정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청소년 미혼부모 국내 지원 정책

부처명	지원정책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지원
	미혼모·부를 위한 출산 및 양육용품 지원(연 70만원 이내)
	상담·정서 지원,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전국 17개소)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양육비 최대 월 35만원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등

저소득층일반지원	보건복지부	출산비용 지원(해산급여),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
	국토교통부	LH공사, 지방도시공사 시행 임대주택 공급 국민주택기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교육부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일자리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복지부, 산업부, 환경부, 미래부, 문화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2) 민간단체

국내에서 청소년부모의 주거 및 자립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은 민간 위탁 형태로 민간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미혼부모 대상 단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청소년부모라는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단체도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체로서 ‘킹 메이커’와 ‘사단법인 링커’, 그리고 ‘러브 더 월드’세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킹 메이커

청소년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기로 선택하면서 겪는 여러 위기들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킹 메이커(대표: 배보은)는 지난 2011년 미혼모 가정에 물품을 모아 보내는 일로 시작되어 2015년에 청소년미자립가정 지원 사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킹 메이커가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위기임신청소년들의 안전한 출산, 안전한 양육,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입이다. 특히, 킹 메이커는 청소년부모들이 겪는 대부분의 위기가 불안정한 주거문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사례 발굴을 통해 주거를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사업을 운영 및 추진하고 있다.

첫째, ‘킹 메이커 하우스’를 통한 주거 지원이다. 킹 메이커는 주거 긴급지원을 위한 119 응급하우스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례가 접수되면 119 응급하우스를 통해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하고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진로상담, 이어 원가정 상담을 통하여 인큐베이팅 하우스를 제공하며, 그 후에는 최소 1~2회 정도 담당자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한다. 킹 메이커 하우스의 특징은 마을 공동체 중심이라는 데 있다. 센터를 마을의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 내 하우스를 마련하여 보증금을 비롯한 연세, 가전,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서로가 이웃이 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킹 메이커 센터’를 통한 교육 지원이다. 킹 메이커는 초밀착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의 사회적·정서적·교육적 지원을 돕고 있다. 부모들이 아직 발달 중인 청소년시기임을 고려하여 지원을 주고받는 과정이 일종의 ‘학습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킹 메이커가 지원하는 교육으로는 부모교육, 자녀교육, 부부교육,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요리·취미교육 등과 같은 생활교육이 있다.

셋째, ‘킹 메이커 셀럽’을 통한 일자리 지원이다. 킹 메이커는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위한 일자리교육보다 이른 임신과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오는 산후우울증, 정체성 혼란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과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일자리교육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수제청 만들기 사업 등이 있다.

그밖에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 부모동의 없이 혼인신고, 주소 이전, 긴급생계비 수급, 정부지원주택 계약 주체 자격 획득 등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제약 및 복지의 사각지대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과 권리 옹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사단법인 링커: 위드맘, 해아리대안학교

국내 청소년미혼모와 해외 개발도상국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링커(대표: 이효천, 이하 (사)링커)는 지난 2015년에 비영리법인 위드맘이라는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사)링커는 청소년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통해 기본 생활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및 희망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리브(All Live)하우스라는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거시설 지원이다.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는 (사)링커는 지난 2009년 한 가정의 첫 보증금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안산을 기점으로 안산시 21개 가정, 부천시 10개 가정, 인천시 13개 가정, 부산시 8개 가정, 총 52개 가정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지급함으로써 자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인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 자활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2018년 12월에는 공동생활가정인 All-Live 하우스를 시작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단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보호소도 유치할 계획이다.

둘째, 해아리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이다. 지난 2018년 2월에 설립하여 4월부터 청소년 미혼모 15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검정고시 과정을 1:1학습으로 제공하고, 에스테틱이나 바리스타, 캔들 자격증 등 자격증 과정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명이 수료하였으며, 네일아트와 제과제빵 자격증 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소년 미혼모들의 존엄성을 찾아주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프롬맘(From Mom)’이라는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로부터 시작된 해외 아동 및 개발도상국 지역개발 지원 활동으로서 자체적으로 미용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선순환은 청소년 미혼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자립을 넘어 심리적·정서적 자립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

(3) 러브 더 월드

국내 청소년 미혼모 지원 사업을 하는 러브 더 월드는 서지형 대표가 청소년부모를 개인적으로 돕던 것에서 시작하여 지난 2015년 본격적인 지원 단체로 설립되었다. 경기도 수원, 안양을 중심으로 러브 더 월드를 찾는 이들은 대개 원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부모들이며, 이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브 더 월드에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부모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및 출산 후 거주할 쉼터를 제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거나 임신 중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쉼터 제공과 같은 주거지원에서는 긴급일시보호뿐 아니라 월세나 공과금 지원, 긴급생활지원 등을 포함하며, 의료비지원의 경우 진료 및 출산 병원비와 동행진료, 철분제, 약 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양육지원으로서 물티슈,

기저귀, 아기 분유 등 실질적 생활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 캠프 및 소풍 등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로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교육 사업으로서 청소년미혼모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인 경우 검정고시를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엄마리더십 교육, 부모역할훈련교육, 성교육, 진로소명교육 등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필요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취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정보지원이다. 앞서 살펴본 임신, 출산과 관련되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연계하고 있다. 또한 주거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제공정보와 이에 대해 연계를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주거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 상담 사업도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부모 외에도 성인미혼부모 혹은 한부모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데, 가족캠프, 집단상담, 대인관계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한부모 가정 역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심리·정서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해외 사례

본 절에서는 해외의 청소년부모 생활지원 사례를 통해 한국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로는 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독일, 영국, 네덜란드를 선정하였다. 먼저 국가별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사례를 제시하였다.

1) 국가별 지원정책

(1) 독일

독일에서 청소년부모는 일반적인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되는 가족정책은 자녀출산 후 받게 되는 부모수당과 아동수당, 양육비, 생활비, 보육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데, 청소년부모는 대개 한부모

가정으로서 가계소득 등의 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우선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상이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청소년들이 10대에 미혼부모가 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의 지속,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보육 시설 이용 기회 제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독일의 청소년 임신율은 유럽 내에서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전체 임신 중 10대 청소년 임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에 11%정도였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점점 줄어들어 2009년에는 7.2%로 낮아졌다(Kamila, C.&Regina, T.R.,2014). 이는 같은 해 유럽연합의 평균 12.2%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은 청소년미혼모들만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놓기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포괄적인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지원법 내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양육이나 경제적 부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그 중 청소년부모들의 학습 및 거주 지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교육 지원 : 출석 및 교육과정 이수 보장

독일의 교육과정은 주정부마다 다르게 운영되므로 청소년부모의 학교교육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정부 혹은 민간복지단체 소관 영역이다.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 문제 발생 시 이는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모성보호법,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지원법,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주는 사회부조법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진다.

우선, 독일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출산의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거나 다니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 질병의 사유로 출석 인정을 받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정재훈, 2009). 다시 말해 재학 중 학생이 임신을 하고 그에 따라 결석을 하게 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마찬가지로 출석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출석일수 부족 등과 같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학교교육을 이어가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부모 역시 교육을 위한 추가 비용이나 특별한 사회적 낙인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정재훈, 2009).

마지막으로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 독일의 중앙정부는 한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위하여 전문 연방장학법에 따라 진학이나 전문교육을 받는 한부모들 대상으로 아동 당 113유로의 자녀양육비용을 부담해준다. 2010년에는 683

명의 한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아직 10세가 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견습생들에게도 매달 한 명의 자녀일 경우 113유로, 그 이상의 자녀 당 85유로를 지원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는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며, 청소년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② 주거지원 : 시설을 통한 보호 기간

독일의 청소년부모들은 지자체의 사회국 소속인 청소년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청소년국은 청소년부모의 교육권 보장 외에도 거주지원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모/부자 시설이나 돌봄 공동주거지 제공이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총 329개의 시설 중 314개가 민간복지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부모들의 경우 학교교육 지속과 더불어 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대개 시설 거주를 권유받는다. 시설에서는 자기 계발, 일상생활 조직, 독립을 달성하도록 부모훈련 및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경우 최저생계비 지원은 시설로 제공된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부조수급자격을 얻게 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는 최저생계비 약 164만원 이외에도 아동 수당과 주거비용, 난방비용을 지원 받는 것을 포함하며 동시에 한부모 수당으로서 월 100유로를 지원받게 됨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대형 시설 거주보다 지역 내 일반 거주지에서 소규모로 양육을 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영국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율이 높은 나라이다. 물론 최근 2019년 5월 기준 영국의 청소년 임신율 및 낙태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5~17세 임신율(conception rate)은 지난 2007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 17.9%로 낮아졌다(nuffieldtrust 홈페이지, 2019). 이는 지난 1990년에 47.7%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거꾸로 낙태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51.7%에 이르렀으며,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영국의 한부모가정 지원 단체인 Gingerbread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가정 중 1가정이 한부모 가정이며 그 중 1%가 청소년부모에 해당된다(Gingerbread 홈페이지, 2018).

청소년부모에 관한 영국의 지원정책은 청소년을 특정하기보다 교육부와 보건부에서 아동 및 가족지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수행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3).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청소년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족의 안정성 제공 측면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한 돌봄과 보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육지원 : 직업 교육을 위한 배려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Care to Learn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센터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Surestart Plus가 있다. 특히,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청소년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임신한 10대와 10대 미혼모 및 그 자녀 모두의 사회적·정서적 웰빙·가족 및 지역사회 건실화·교육여건 및 의료보건 여건의 개선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매일일보, 2015년 5월 17일자). 즉, 지역사회 연합 지원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돌봄서비스인 Care to Learn은 부모가 공부 중이거나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과정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자녀돌봄비용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런던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매주 한 아동 당 £160, 런던에 거주할 경우 £175를 지원받을 수 있다(영국 정부 홈페이지). 이 비용에는 돌봄센터 등록비를 포함하여 휴가 중 자녀 돌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부모가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이거나 월급을 받는 실습생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슈어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의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4세 미만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학습기술, 건강, 사회성·정서 발달 등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태아 지원 및 모유 수유를 포함한 산후 조리, 유아 마사지 및 놀이, 부모교육, 보건·영양 교육, 의사소통훈련 등이 있다(nidirect 홈페이지; 고수정, 2016). 그 외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썬더랜드의 ‘젊은 부모프로젝트(Young Parent’s Project)’도 있다. 이는 썬더랜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모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16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주 3회 수업을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보건 방문자가 1주일에 1번, 1시간씩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돕는다.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도 가능하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② 주거지원 : 보호와 자립 사이 다양한 주택 모델 제공

영국은 16~17세 청소년부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준 독립주택에 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연령 특성상 개별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기보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 프로젝트(housing project)'이다. 이는 주거 공간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산 관리 및 부모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청소년부모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거시설은 24시간 현지 지원을 받는 호스텔에서부터 독립적인 아파트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넓은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을 지원하는 유동적 지원까지 다양하다. 주택공사(The Housing Corporation)에서는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서로 5개 모델의 거주 공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각 청소년부모들의 특성과 담당지원, 주택시설의 질적 측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허남순 외, 2005).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5개 모델은 1)공동지역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필요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주택, 2)호스텔 형, 3)공동주택형, 4)개별주택형, 5)가정위탁형으로, 이중 가정위탁은 청소년부모를 위한 특별제도로서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을 재현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보육을 도와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10대 청소년 임신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속해 있으며,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 2015년에는 청소년 임신율이 1,000명 기준 4.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80%는 만 18세였고 16세 이하는 8%였다. 네덜란드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도 학교나 직장에서 학습 또는 일을 지속할 수 있으며,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고, 훌륭한 집과 같은 여타의 다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여러 이주민들과 위기가정,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Rutgers, 2017).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네덜란드의 정책은 보건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철저한 성교육과 임신 및 출산의 지속여부 결정에 관한 상담, 지역 사회 내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적으로 실행하는 주거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성 교육을 통한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주거지원 관련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인 성 교육 및 출산 지원

네덜란드는 지난 1993년 건강교육을 중등교과에 포함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4년부터는 13~14세 초등학생부터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중등학교부터는 생물학 또는 보건전문 교사가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청소년을 섹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성 교육 자료로는 '긴 생애 사랑 프로그램(Long Life Love)'이 있으며, '첫 경험, 피임, 거부 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토론 중심의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내용뿐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 태도, 이성을 만날 때 대화의 기술 등도 포함하고 있다(Astudy, 2016). 이러한 체계적인 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콘돔과 피임약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잘못된 임신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원하지 않는 임신 시에는 임신 24주 이내에서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이는 오히려 낙태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 시 마을마다 위치해 있는 보건상담소는 집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산모가 상담을 받게 하는데, 아이가 자라는 환경과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보건상담소 의사, 지역 간호사, 업무 도우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강은진, 2016).

② 주거지원 : 지역사회 안의 주거 환경

네덜란드는 임차가구의 약 78% 이상이 공식적인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사회주택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이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격이 결정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 대상이 되어 시세의 50~70%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임대료와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본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주거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시니어타임스, 2018).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주거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주택은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화장실은 물론 작은 발코니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커뮤니티 하우징을 목표로 민간부문에서 100명 규모의 공동주거 형태도 운영 중이다. 청소년부모 역시 입주가능하며, 이러한 공동주거는 외부공용 시설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공동 공간과 개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동체 생활과 동시에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사회 안에 거주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사회주택의 높은 비율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2) 민간단체

다음으로 청소년부모의 생활 지원을 돕는 해외 민간단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lmost home’, 네덜란드의 ‘CW Delft’가 있다.

① 미국의 Almost home :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

청소년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Almost home은 1993년 Irene와 Jacinta 수녀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 미혼모들이 심각한 주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를 돕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의 빈곤은 한 번에 엄마와 자녀 두 세대에 걸쳐 순환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게 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청소년 미혼모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Ⅴ-2]와 같다.

안정성	개인의 웰빙	가족 웰빙 & 성공적 부모역할	교육 & 취업 촉진	재정 문해력	자기 충족성
• 성공을 위한 장벽 제거 • 모자 의료지원 • 법적 문제 •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	• 건강한 관계 발달 • 지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창조 • 현실적 목표 설정 • 정서적 안정성 증진 • 개인적 발달 기술 향상	• 긍정적 양육 기술 발달 • 아동 학대 예방 전략 • 자녀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가족계획 수립 •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방지	• 고등학교 학위 획득 • 직업/진로교육 완수 • 취업 준비성 강화 • 21세기 직업 기술 획득 • 현실성과 가능성을 고려한 직업 세계 진입	• 재정 문해력에서 비판적 안목 획득 • 책임있는 재정관리 학습 • 현실적인 재정 계획 수립 • 은행 이용 및 저축 습관화 •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을 얻기 위한 자산 형성	• 자녀돌봄 능력 유지하기 •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갖기 • 스스로 삶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갖기 • 성공적인 삶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책임있는 부모역할에 자부심 갖기 • 경제적 독립 획득

[그림 Ⅴ-2] Almost Home의 지원 모델

Almost Home은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는 시설 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기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성을 기반으로 개별적 웰빙과 성공적인 부모역할을 통한 가족의 웰빙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취업 활동을 통해 재정 기반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FTS(Foundations to Success)로서 만 16~20세까지의 임신·출산한 여성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주거의 필요성을 가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자녀를 위한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생계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기술을 획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안전한 과도 주거 제공, 음식 및 의류 등 생필품 지원, 사례 관리와 상담, 학습 과외, 생활 기술 수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정 문해력을 갖도록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ASP(Alumni Support Program)으로서 FTS를 수료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자립을 유지해나가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계속해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안에 연계되면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처지의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료 후 8년까지 이어지며, 저비용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 돌봄 및 코칭, 심리치료, 동료 멘토링, 가정 방문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한다.

② 네덜란드의 CW Delft: 공동체 중심 사회주택

CW Delft는 일종의 공동체 주택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핵가족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하우징을 목표로 민간부문에서 기획되어 자율적 워크샵을 통해 확산된 것을 말한다(서울사회적경제센터, 2015).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3개의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커뮤니티 하우징 사례이며, Central Wonen Delft는 100명 규모의 공동주거 형태로 조성되어 4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가족화 현상 극복을 위하여 가족단위,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통합하는 그룹을 조직하고 그룹별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 역시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주거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 공동주택은 공동체 조직을 위한 공간과 개별공간으로 구분되어 조화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공유하는 8~10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되 그룹단위의 배타적 분리를 막기 위하여 단위 그룹 2~4개를 모아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각 클러스터별로 세탁실, 창고, 정원, 워크샵(요가 및 물리치료 등)과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

공용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지역 사회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 가족 내에서도 부모방과 자녀방, 거실 등을 구분함으로써 개별적 공간도 존중하고 있다. 공유시설을 사용하는 적정인원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동주방은 6~8명 정도가 1개의 주방을 사용하고 세탁실, 워크숍룸, 자전거 보관소 등에 대해서는 10명, 30명, 40명 단위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규 입주자 선발은 공실이 발생한 그룹별로 투표와 면접을 통하여 진행되는데, 입주희망자의 리스트를 공용공간에 붙여 투표를 진행하고 그 중 3명을 선발하여 식사하며 면접을 진행한 뒤 가장 적합한 1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한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주거, 학업, 생활, 취업, 상담 등 다방면에서 사례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대·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한부모가족지원 내에서 한부모가족의 유형 중 하나로 '청소년한부모'를 다루던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필요성 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의의가 있는 방향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 변화되어 가는 청소년부모들의 가족 유형과 그 경향성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는 민간단체 역시 청소년미혼모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일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해가는 청소년부모들의 요구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지원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한계를 잘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보호자 역할 제공이다. '킹 메이커'와 '러브 더 월드'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부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복지의 공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과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부모들의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교육비 외에 교사 매칭을 통해 1:1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링커 소속 해아리 대안학교의 1:1 교사 매칭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 지원은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중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있음을 고려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교육비만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학습의지가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교사와 교육 컨텐츠 접근 등의 학습과정을 연계해주는 것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모들이 여전히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이 아닌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진로를 모색하도록 돕는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킹 메이커의 교육지원 및 일자리지원은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평생학습사회를 신중하게 고려한 지원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형성 및 지원이다. 사례로 살펴본 세 곳의 민간단체들은 주거, 교육, 자녀양육 등의 지원이 각각 제공되기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부모들이 생활하는 생태계를 고려하며 그에 맞춰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킹 메이커와 사단법인 링커는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를 지원하는 가정들이 근거리 내에 위치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게 하며 서로가 이웃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을 통합적·공동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그들의 생활 전반의 생태계를 고려한 밀착지원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각 해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보면, 독일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영국은 청소년부모에 대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에 있어 민간차원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로부터 국내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취업 및 보육, 주거 지원 부문의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우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 여부만으로 포괄적인 가족정책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그들이 특별대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갖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지방정부 내 청소년국이라는 거점 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임신 및 출산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학교에서도 임신 및 출산이 학교교육의 중단 사유가 되지 않도록 휴학 및 출석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 미혼부모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학습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부조제도를 통하여 최저생계비와 한부모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돕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 어려움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응답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둘째, 영국의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고용·주거·양육 등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엇보다 생태적 측면에서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들의 사회적 건강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해나가는 접근을 취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조건적 시설거주 권유가 아닌 변화해가는 청소년부모들의 다양한 요구(needs)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사회적 지원망 내에 존재하며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부모로서 청소년부모들이 자녀들과 건강한 정서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부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 역시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잘 발달된 국가로서 오랜 시간 체계적인 성 교육을 통해 청소년 임신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른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직접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으로 양질의 지원을 마련해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간단체와의 협력 하에 다수의 사회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부모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고, 높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및 주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미혼모시설 이후 독립적으로 주거지를 찾아다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의 민간단체 역시 청소년부모들을 위한 적합한 주거지원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부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적응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임대주택 구성원을 다양하게 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한 공유지 활용으로 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것, 클러스터 단위의 협력과 생활 관리 및 자조모임을 통해 느슨한 관계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점은 일괄적 기준 혹은 다소 협소하게 건설된 임대주택 제공이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시설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미국의 민간단체인 Almost Home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정서적 자립을 위해 청소년부모들의 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다. 특히, 자립한 부모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 관리를 이어가고, 후속 청소년부모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무슨 기준으로 볼 것인가를 논의하고, 자립 이후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여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정서적 공감에 취약한 국내 청소년부모 지원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자면, 국내에서 지원은 청소년부모를 '한부모가족'의 범주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도적 필요는 정부차원에서, 실제적 필요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이 둘을 연계하는 거점기관 및 거점서비스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보였다. 반면 해외 사례들의 경우에는 청소년부모를 혼인/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이자 동시에 아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의 범주 안에서 보면서 이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변화해가는 청소년 세대의 다양한 심리·사회·문화적 요구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 외에 지역 사회 안에서 청소년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과정을 마련해놓고, 이 과정이 공동체적으로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청소년 미혼모·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연구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책과 연구들은 청소년 미혼모·부 즉,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미혼모·부로 등록된 '한부모가족'의 형태에만 그 지원과 관심을 집중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 고시원에서 생후 7일된 아기와 생활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한 10대 청소년 부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법적 연령 제한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곧 청소년부부의 경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될지라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자격에서 제외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실태가 좀 더 정확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미혼모·부, 청소년 부부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청소년부모'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실제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청소년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소년부모들의 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청소년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되고 있는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미혼모·부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단계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도 포함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청소년부부도 포함하였다. 우선 이들의 생활 실태 조사 진행을 위해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및 기관 실무자와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생활 실태를 다각도로 탐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15개의 표본이 수집되었다. 또한 정성적 측면에서 청소년부모 5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청소년부모를 실질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 3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들은 거주, 학력 및 취업, 소득 및 부채수준, 육아 등 여러 면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불안정한 주거'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성년도 미성년도 아닌 모호한 상태로 법정 대리인의 도움 없이 자립을 도모해나가기에 어려운 사회구조적·제도적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원치 않는 재임신, 낙태, 조산 등의 문제 외에도 부적절한 일자리 획득, 불법 대출, 미숙한 자녀양육태도 등에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자녀양육을 위한 생계비와 주거마련 비용이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들은 자녀(46%) 다음으로 배우자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각각 27.9%로 제법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택 중 하나로 해석되며, 동시에 배우자와 동거중일지라도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일 경우 신혼부부지원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에도 해당되지 않아 주거 마련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축과 대출의 목적 역시 생계비와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것이 각각 62.2%, 18.4%로 나타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생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청소년부모들은 임신 이전에 학교부적응 혹은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낮은 최종학력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불안정한 근로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업포기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34.9%로 가장 많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학교를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33%로 그 다음 많았다. 이러한 포기는 근로활동 경험 및 현재 직업과도 연결되는데, 청소년부모들은 주로 단순노무직(56.6%)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대개 시간제 아르바이트(15.6%)였다. 그리고 근로활동경험이 없는 경우도 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쉬고 있는 이유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가 32.6%,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30.6%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들이 낮은 학력 외에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돌봄지원체제가 충분하지 않아 근로능력발휘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취업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

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기초생활수급 혹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수입을 가질 수 없어 단순 노동 및 경제적 악순환에 처하게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와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자립을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학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계환경을 보장해주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청소년부모들은 주로 임신 초기에는 자기 집 혹은 배우자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출산 직전에는 대개 미혼모 시설을 이용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 초기에는 미혼모시설 거주에 응답한 비율이 8.9%에 그치지만, 출산 직전과 출산 직후에는 각각 14.6%, 13.3%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긴급하게 시설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고자 한 개연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동시에 여관이나 모텔, 찜질방에 거주한 경험자도 응답자 전체 315명 중 38명으로 나타나 출산 전후 정서적·위생적 측면에서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주목할 것은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후 모두 시설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51.1%, 44.1%, 44.8%)과 부모님 집에 거주한 비율(31.1%, 33.32%, 31.4%)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원가족으로부터 임신 및 출산 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시설입소경험에 대하여 ‘들어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69.8%고 그 이유를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힘들어서’와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가 각각 21.7%, 19.1%로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이유를 암시한다. 그것은 시설 이용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과 배우자를 동반한 청소년부부들이 시설 밖에 제법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시설 밖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부들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임신과 육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고 육아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개의 청소년부모들은 임신 사실을 늦게 지각했는데, 그로 인해 조산의 위험을 겪을 뿐 아니라 낙태를 고려할 수 없고 출산 후에도 입양을 권유받는 경우(약 60%)가 많았다. 임신 사실을 지각했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들은 낙태와 입양의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양육을 선택한 이들인데, 막상 자녀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 경우가 14.6%나 되었다. 배우자나 원가족들이 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가장 손쉬운 정보 획득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50%이상)였는데, 이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이 요구

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모들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서는 자격 조건 완화와 그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들이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을 받고 그 제도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미성년으로서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부모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부모들이 많다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청소년부모들의 포기 대상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경제적 독립을 통해 탈수급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들에게 지원받을 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제적 취약함을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마저도 한부모가족지원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주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스스로 법적 주체로서 권리를 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부모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임신과 육아에 대한 대처방안과 책임의식을 교육을 통해 강조하는 것, 생활 개선의 핵심이 될 생계와 주거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논의하고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및 정보제공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안에서 청소년부모들의 교육·양육·취업·정서적지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하는 킹 메이커, 사단법인 링커 등과 같은 국내 민간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들의 임신 후에도 학업을 보장하고 철저한 성교육으로 조기 임신뿐 아니라 재임신을 예방하는 독일의 사례, 청소년부모들의 직업교육과 이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영국의 사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주거환경 모델을 통해 청소년부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주택제도를 발달시킨 네덜란드의 사례, 청소년부모 개인의 웰빙과 더불어 성공적 부모역할과 재정 문해력 및 교육과 취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Almost Home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에서와 같이 청소년부모의 생활실태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적 측면, 양육 측면, 정보지원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안전한 자립을 위한 서비스 통합지원

청소년부모는 자신과 자녀의 성장을 위해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안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는 자신이 출산한 자녀의 부모가 되었으나 그들 역시 성장기에 있는 연령으로서 자녀가 함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은 원가족 부모의 돌봄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임신과 출산을 했을 경우,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에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를 원가족 조부모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부모 원가족은 대체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조부모가 3세대까지 책임을 다할 경우 주어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위한 양육비 또는 생계비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까지 양육을 하게 되면서 겪는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상담 서비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반면 원가족이 청소년부모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청소년부모가 안정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이 가능한 주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거비가 실제 생계비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소년부모는 원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이 적었다. 또한 복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소년부모는 저축 및 대출의 목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원책에 대한 요구에서도 생계비와 주거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주거비와 생계비 해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거비 마련을 위해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

어야 할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도 생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주거지원을 단기·장기적 지원책으로 하여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각 영역의 서비스가 통합적, 순차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부모는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취업에서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이 낮으면 원가족과 같이 저소득층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그 순환을 단절시킬 수 있는 안정된 주거가 먼저 마련되는 것이 가능해지면, 장래 직업과 자신의 일을 설계하도록 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성년인 청소년부모가 주거를 마련하거나, 직업, 혼인을 원할 경우 원가족인 부모의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만 19세 미만으로 보는 데 따른 제약사항인데, 특히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신청과 주거비 지원 신청도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다. 임대차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자녀를 임신,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양육자로서 역할을 인정하고 청소년부모 스스로 자신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과 자격요건 완화, 그리고 적정 조건의 주택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곧바로 거주할수 있는 주택을 공공에서 모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의 그룹홈 또는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주지하여, 상위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활용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에게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 「긴급복지지원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통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하거나 출산이 임박한 미성년인 청소년부모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을 통해서라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을 모두 포함한 보편복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Ⅵ-1]과 같이 청소년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지원하되 주거를 기반으로 보육, 교육 및 취업 등의 각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례관리모형을 제안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부모들의 안전한 자립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Ⅵ-1] 청소년부모와 자녀를 위한 주거기반 통합사례관리 모형

2) 접근성 높은 정보제공의 장(場)지원

청소년부모는 대체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임신 및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 사이트를 활용하는 청소년부모도 일부 있었다. 반면 양육을 논의하는 대상에서는 가족과 친구를 제외하고 누구와도 의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또는 그 밖의 온라인을 활용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온라인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활용빈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app],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이 있을 것이며, 관련 온라인사이트 마련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청소년부모의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정보에 대한 환류와 상담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또한 [그림 Ⅵ-2]와 같이 이것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모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환류 할 수 있도록 상호적

인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Ⅵ-2] 청소년부모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정보 제공

3)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실천중심 성교육 확대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실천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교육이 정책적으로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부모들은 임신 당시 대체적으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임신 기간 동안 신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으로도 부모로서 부모됨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는 청소년부모들이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자연스럽게 접하는 낙태와 입양의 권유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당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이별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맡게 되는 등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애초에 임신과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임신이 되었을 때 신체적 반응이나 준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면담 대상자들은 대부분 학교 재학 중에 임신하였는데,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건강한 성문화 및 성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부족했음을 표현하였다. 더욱이 학교를 벗어나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은 그마저도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에 학교안팎으로 청소년에 대한 실용적이고 처방적인 성교육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부모들은 피임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지 않았으며 활용도 가능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예방적인 성교육을 강조하였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과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고 실천할 때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청소년의 임신은 피임법에 대한 지식 유무와 큰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남학생은 13.3세, 여학생은 14.4세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학생의 피임 실천율은 남학생 57.9%, 여학생 62.4%로 나타났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이는 성(性)에 대한 관심 및 경험의 나이가 어려졌으며, 그로 인해 초등학생 때부터 효과적인 성 교육이 이루어져 함을 보여준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건전하고 올바른 의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 학교 성교육표준안을 만들어서 유치원, 초(저), 초(고),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각 학교급에 따라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 2017). 2년간 시범연구를 거쳐 지난 2017년에 모든 학교들에 최종안을 보급하여 교과 연계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교사에 의해 재구성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한계를 보이는데, 하나는 변화하는 세대들의 성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점과 다른 하나는 '학교 중심 성교육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학교 밖 아동·청소년들은 적절한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 이에 반해 미국의 종합 성교육지침서는 지역사회의 유관된 기관이나 시설과의 연계교육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는다(이규은, 2019). 성교육은 곧 인간교육이기도 한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건전한 성 인식과 실천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그것은 학교 중심의 운영을 벗어나 시민교육 측면에서 지역사회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변화하는 세대들의 성문화를 고려하면서도 건강한 성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생명존중, 배려 등과 같은 가치 안에서 실제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으면서도 임신 시 실질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성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발달단계에 맞춰 세분화되어 개발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표준안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성 행동'영역이 이론보다 실천중심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을 고려할 때 '학교 중심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청소년부모의 접근이 쉬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Ⅵ-3]과 같이 청소년들이 임신 및 출산 시 이용하는 병원이나 민간기관, 또는 출산 후 가족관계등록 시 이와 관련된 지역기관에서는 학교 혹은 지역사회 기관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의 성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의 장으로서 온라인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근로활동을 하고자 할 때 청소년을 고용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성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사회적으로 다각도로 마련해놓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전문적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는 임신과 임신 준비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미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재임신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성교육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림 Ⅵ-3] 지역사회 중심의 성교육 확대

참 고 문 헌

강은진(2016).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9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고수정(2016). 교육불평등에 대한 조기개입정책 분석: 영국의 Sure Star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8(2), 99 - 120.

교육부(2017). 학교 성교육표준안 운용의 실제 직무연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김은지 외(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 연구보고 2011 - 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외(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연구보고 13 - R17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은(2019). 한·미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 963 - 983.

김지현 외(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 2018 - 22. 육아정책연구소.

정재훈(2009). 10대 미혼모 교육권 보장: 독일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허남순 외(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발간번호 1 - 1060100 - 000061 - 01. 여성가족부.

Kamila, C. R. & Regina, T. R. (2014). Teenage Pregnancies and Births in Germany: Patterns and Developments. IZA.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http://www.law.go.kr, 8월 30일.

경남일보(2016). “ 청소년 나이 규정에 대한 논란 ”, 7월 20일.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2019). https://www.government.nl/topics/abortion. 11월 6일.

러브더월드 홈페이지. http://www.lovetheworld.or.kr, 11월 6일.

매일일보(2015). “ 미혼모도 엄마일 수 있는 나라는 가능한가 ”, 5월 17일.

부동산통계정보(2019). https://www.r - one.co.kr. 12월 9일.

사단법인 링커 홈페이지(2019). http://www.linker.or.kr/main/sub.html?pageCode, 11월 6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9). http://sehub.net, 11월 6일.

시니어타임스(2018). “ 시민 모두의 집, 유럽의 사회주택 ”, 11월 5일.

시사저널(2010). “ 고난의 첩첩산중 뚫는 10대 부부들 늘고 있다 ”, 3월 30일.

여성가족부(2018). “ 한 눈에 보는 미혼모 · 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 2월 21일.

영국 정부 홈페이지(2019). https://www.gov.uk/care - to - learn/what - youll - get, 11월 6일.
중부일보(2015). “남양주 복지지원단, 10대 청소년 부부 지원 나서 훈훈”, 7월 23일.
통계청(2019).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통계청(2018). 2018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통계청.

Almost Home(2019). https://almosthomestl.org/solution/#model, 11월 6일.
Astudy(2016). “선진국에게 배우는 참된 성교육 방법”. 7월 12일.
CW Delft(2019). https://www.cwdelft.nl, 11월 6일.
Gingerbread(2019).https://www.gingerbread.org.uk/wp - content/uploads/2018/02/One - in - four - a - profile - of - single - parents - in - the - UK.compressed.pdf, 11월 6일.
Nidirect(2019). https://www.nidirect.gov.uk/articles/sure - start - services. 11월 5일.
nuffieldtrust(2019). https://www.nuffieldtrust.org.uk/resource/teenage - pregnancy, 11월 6일.
Rutgers(2019). https://www.rutgers.international/sites/rutgersorg/files/PDF/RHRN - HLPF_A4leaflet_NL.pdf, 11월 6일.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경험 이해

연구를 통해 귀하를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미혼모네트워크와 청소년미자립가정 지원단체인 킹메이커 주관으로 청소년부모(미혼부·모)의 생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귀하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면담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과의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심층 면담 시간은 1회당 1~2시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면담은 1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에 전화나 이메일 등의 추가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취될 것이며, 녹취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자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는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참여를 중단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참여 전·중·후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연구를 마친 후에는 이 연구 결과를 귀하와 기꺼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결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며 참여자로서 귀하의 신분 또한 연구자만 알고 익명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데 대한 사례로 소정의 금액(5만원)을 지급해드릴 예정이오니, 본 연구의 특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아래 본인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 동의서의 사본은 귀하에게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짜: 2019년 월 일

연구자: 은주희 박사(책임연구원) (인)
임고운 박사(공동연구원) (인)

부록 2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1995년생까지)의 취업, 주거, 양육, 교육,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부모]의 양육환경 및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을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사기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단체 킹메이커

* 휴대폰으로 설문조사 참여시, 응답중 다른 작업(카톡, 게임, 전화통화 등)을 하는 경우 설문이 초기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설문 작성에 대한 사례 지급과 응답에 대한 사실 확인, 청소년미혼부모 지원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 응답이 가능하며, 설문을 모두 마친 경우에만 응답 사례(현금 2만원 계좌입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추천인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본인명의 계좌번호 :
추천인 이름 :

답변하실 때,
*귀하가 남성인 경우,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응답은 귀하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두 명 이상의 경우, 과거 경험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Ⅰ. 귀하(응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태어난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　　년)
(*네 자리 숫자만 입력)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여 □ 남

3.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명)
(*숫자만 입력, 임신 중 포함)

3-1. 귀하의 자녀는 몇 살입니까? (생년월로 작성해주세요/ ex. 2017년 3월)
(* 임신중일 경우 출생예정일 기준, 다자녀의 경우 자녀 모두를 기록해주세요)

4. 귀하가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 모두에 체크해 해주세요.
① 자녀(임신중포함) ② 배우자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본인의 형제자매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본인의 친인척 ⑧ 배우자의 친인척
⑨ 본인의 친구 ⑩ 배우자의 친구 ⑪ 기타

5. 귀하의 현재 혼인신고 및 동거 여부는 어떠합니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를 지칭합니다)
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별거
②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
③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배우자와 동거
④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나 배우자와 별거
⑤ 기타

6.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 배우자에게 받은 적 전혀 없음
② 함께 부담
③ 배우자가 모두 부담
④ 기타

7.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Ⅱ. 취업경험 및 소득수준

8.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학생 ② 쉬고 있음(휴직/휴학 포함) ③ 시간제, 아르바이트 ④ 종일 근로
⑤ 기타

9. 귀하가 그동안 경험했던 직업이나 근로활동(아르바이트 포함)을 모두 써주세요.
(주관식)

10. 귀하께서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당없음(현재 근로를 하고 있음) ②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③ 마땅한 일을 구하지 못해서 ④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⑥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받는 시선 때문에
⑦ 학업 중에 있어서 ⑧ 건강이 좋지 못해서
⑨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⑩ 기타

11.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받는 금액에 표시하세요)
① 50만원 이내 ② 50~100만원 ③ 100~150만원
④ 150~200만원 ⑤ 200~250만원 ⑥ 250만원 이상

12. 귀하의 주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① 나의 급여 ② 배우자의 급여 ③ 가족의 급여
④ 정부보조금 (ex.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⑤ 친인척의 도움
⑥ 지인의 도움 ⑦ 후원자 또는 지원시설의 도움
⑧ 기타

13. 귀하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만 등록되어 있다. ②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③ 둘다 등록되어 있다. ④ 둘 다 지원되어 있지 않다.

14.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둘 중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 기준으로 응답)
① 해당없음 (둘 다 등록되어 있다.) ②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③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④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⑤ 필요가 없어서 ⑥ 기타

Ⅲ. 주거환경 및 육아경험

15. 귀하(또는 배우자)는 미혼모를 위한 입소 시설을 이용해 보았습니까?
(*시설:출산 전후 지원 미혼모시설,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모자원, 기타 복지시설 등)
①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용해 보지 않았다.
② 들어는 보았으나, 이용하지 않았다.
③ 들어 보았고, 이용해 보았다.

16. 귀하(또는 배우자)가 현재 미혼모 관련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 응답하셔도 됩니다.)
①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없어서 ② 시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③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④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적응이 힘들어서
⑤ 시설에 산다는 주변시선이 불편해서 ⑥ 생활하던 지역 내에 시설이 위치하지 않아서
⑦ 시설 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⑧ 해당없음 (현재 시설 이용중)
⑨ 기타 (구체적으로)

17. 귀하가 임신을 알게 된 임신 초기에 어디에 거주하셨습니까?
① 부모님 집에 거주
② 미혼모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거주
③ 형제·자매 집에 거주
④ 친구 혹은 지인 집에 거주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집(자기집)
⑥ 기타

18. 귀하는 출산 직전,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하셨나요?
① 부모님 집에 거주
② 미혼모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거주
③ 공공임대 주택
④ 형제·자매 집에 거주
⑤ 친구 혹은 지인 집에 거주
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집
⑦ 기타

19. 귀하는 출산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① 병원 ② 자기 집 ③ 형제·자매 집 ④ 지인의 집 ⑤ 기타

20. 귀하는 출산 직후에 어디에 거주하셨나요?
① 자기 집 (배우자 집)
② 미혼모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③ 모자가족복지시설(모자원)
④ 형제/자매 집에 거주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집
⑥ 모텔. 찜질방. 고시원
⑦ 기타

20-1. 귀하가 임신 또는 출산 이후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머물러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여관/모텔에 있었음
③ 찜질방에 있었음
④ 고시원에 있었음
⑤ 기타

20-2.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머물러 본 경험이 있다면 머문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개월)

21. 귀하가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녀 보육 및 의료 등의 자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함
② 산전 후 관리, 자녀양육법 등을 모름
③ 생활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
④ 불안정한 주거문제
⑤ 진로 및 취업 등 사회복귀의 어려움
⑥ 가족의 외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외로움
⑦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상의 어려움
⑧ 기타

22. 귀하는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주로 누구와 의논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 친척 ② 배우자 ③ 친구 ④ 복지시설 담당자
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음 ⑥ 같은 경험을 한 동료 ⑦ 기타

23. 위 21번 문항 중 가장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2가지 이상 응답하셔도 됩니다.)

① 주거에 대한 정보
② 주거비용(보증금, 월세 등)
③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④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⑤ 심리. 정서적 도움
⑥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도움
⑦ 기타

24. 귀하는 주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누구로부터 도움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각각 대상별로 느끼는 정도의 번호를 체크해 주세요)

구 분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보통	약간 받음	매우 많이 받음
귀하 부모님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귀하 형제/자매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배우자 가족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복지시설 담당자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동사무소 등 공무원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다른 미혼부모로 부터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친구나 지인의 도움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가 현재 임신, 출산,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해주십시오.

① 자녀양육비 지원
②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③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④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⑤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거지원
⑥ 청소년 미혼부모와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
⑦ 청소년미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 입소 지원
⑧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
⑨ 직업훈련 및 직장소개
⑩ 상담서비스 제공
⑪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⑫ 각종 지원 서비스 신청의 간소화
⑬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 지원
⑭ 사회적 인식개선
⑮ 기타

26. 귀하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① 되어 있다 ② 되어있지 않다 ③ 해당 안 됨(출산 전)

26-1. (출생신고 되어 있다면) 출생신고 시 자녀의 부모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여럿일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① 우리부부 ② 자녀의 친모 ③ 자녀의 친부 ④ 본인의 부모나 형제
⑤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⑥ 해당 안 됨(출산 전) ⑦ 기타

26-2.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서
② 출생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서
③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④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생길까봐
⑤ 내가 키우겠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⑥ 해당없음 (출산 신고 되어있음)
⑦ 기타

27.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느 유형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빌라 (투룸 이상) ③ 아파트 ④ 원룸이나 고시텔
⑤임시거주(찜질방, 모텔, 임시거주시설 등) ⑥ 기타

28.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보증금 있는 월세 ② 보증금 없는 월세 ③ 전세
④ 가족(친인척)의 집에 무상거주 ⑤ 지인의 집에 무상거주 ⑥ 자기 집
⑦ 기타

29.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① 지하층 ② 반지하 ③ 지상층 ④ 옥탑방

30.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현재 집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였습니까?
(*2가지 이상 응답하셔도 됩니다.)
① 내가 모아 놓은 돈으로 ② 배우자가 모아 놓은 돈으로
③ 본인의 원래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④ 배우자의 원래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⑤ 본인의 지인(친구)의 도움으로 ⑥ 배우자의 지인(친구)의 도움으로
⑦ 이웃의 도움으로 ⑧ 정부기관(동사무소)의 도움으로
⑨ 복지기관/지원센터의 도움으로 ⑩ 종교기관/후원기관의 도움으로
⑪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⑫ 사채로 돈을 빌려서
⑬ 기타

Ⅳ. 교육 경험

31. 귀하의 현재 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①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재학 중
④ 중학교 중퇴(휴학) ⑤ 중학교 졸업 ⑥ 고등학교 재학 중
⑦ 고등학교 중퇴(휴학) ⑧ 고등학교 졸업 ⑨ 대학교 재학중
⑩ 대학교 중퇴/휴학 ⑪ 대학교 졸업 이상 ⑫ 무학

32. (휴학, 중퇴, 퇴학으로 응답하신 경우)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주관식)

33.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해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이트
③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다산 콜센터
④ 한부모 상담전화 및 여성 긴급전화
⑤ 구청·동주민센터
⑥ 복지기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⑦ 미혼모 단체
⑧ 원가족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⑨ 다른 청소년부모
⑩ 기타

34. 그동안 임신·출산·양육 관련하여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 수 없었음
② 정보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음
③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였음
④ 정보를 활용하고자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음
⑤ 정보를 활용하고자 했을 때 지원절차가 어려웠음
⑥ 기타

35. 임신·출산·양육 관련해서 알고 싶은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 응답하셔도 됩니다.)
① 실제 아기 양육방법(목욕시키기, 이유식 만들기, 기저귀 갈기 등)
②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방법
③ 연령별 자녀양육 방법
④ 청소년부모 지원제도 관련 정보
⑤ 가정 경제 관리 방법
⑥ 부모교육

⑦ 부부교육(부부성교육포함)
⑧기타

Ⅴ. 원래 가족과의 관계

36. 귀하(배우자)께서 자녀를 임신(출산)하였을 때 가족들의 조언은 대체로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① 결혼 권유 ② 배우자와 함께 아기를 양육하도록 권유
③ 혼자 양육하도록 권유 ④ 입양을 권유 ⑤ 사회복지기관에 상담권유
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함 ⑦ 낙태권유 ⑧ 기타

37. 귀하의 부모님 나이는 올해 어떻게 됩니까? 부 ( ) 세/ 모 ( )세
(*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에도 올해 나이로 계산하여 작성해 주세요)

38. 귀하의 어머님께서 귀하를 임신하였을 당시, 귀하 부모님의 혼인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기혼(결혼상태) ② 이혼 ③ 동거 ④ 재혼 ⑤ 별거 ⑥ 사별
⑦ 기타 (구체적으로)

39. 귀하는 원래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황
②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일반적 상황
③ 경제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④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인 상황
⑤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아닌 상황

Ⅵ. 기타 문제

40. 귀하에게 부채(대출)가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약 ( ) 만원
* 없을 경우 0원으로 기록, 만원 단위로 숫자만 기록

41. 귀하에게 부채(=대출, 빚)가 있다면, 누구로부터 빌렸습니까?
(*2가지 이상 응답하셔도 됩니다.)
① 부채(=대출, 빚) 없음 ② 가족이나 친척 ③ 친구
④ 은행(카드사, 보험사) ⑤ 불법(미등록)대출업체 ⑥ 개인사채업자
⑦ SNS를 통한 개인대출 ⑦기타

42. 귀하가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① 주거비 마련(보증금/월세) ② 학업 비용(등록금/학원비 등)
③ 자녀양육비/생계비(식비. 생활비) ④ 유흥비(pc방.노래방 등) ⑤ 통신비(휴대폰 등)
⑥기타(자세히:)

43. 귀하가 현재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① 하고 있지 않음
② 주거비 마련을 위한 예/적금
③ 생활비(자녀 양육 등)마련을 위한 예/적금
④ 학업 및 취업 비용 마련을 위한 예/적금
⑤ 기타

44. 귀하께서는 피임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피임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② 피임법을 들어는 봤지만, 관심이 없다.
③ 피임법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 활용할 만큼 알지 못한다.
④ 피임법을 들어보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다.
⑤ 다양한 피임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다.

45. 귀하 또는 배우자의 군입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거나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6. 귀하 또는 배우자의 군입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① 군입대 신체검사 이전임
② 현역 판정
③ 사회복무요원 판정
④ 면제
⑤ 아직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음

47. 현재 또는 앞으로의 가장 큰 바람이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써주세요.

청소년미혼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인터뷰를 요청 드린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참여자에게는 사례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① 예, 일정이 맞는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② 아니요

본 설문지는 아름다운 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필진

책임연구원 은주희 교육공학 박사

공동연구원 임고운 초등교육학 박사

도움주신 분

연구자문

방은령 교수(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김승희 교수(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송민경 교수(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학전공)

연구보조

온가영(편집)

이은혜(전사)

아산프런티어아카데미8기 모아이팀(설문조사데이터분석)

201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연구보고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발행인 오영나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주거지원영역통합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